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정답: ⑤



- ① 거푸집을 이용하여 도구를 제작하였다.
- ②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 ③ 반달 돌칼을 이용하여 곡식을 수확하였다.
- ④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지었다.
- ⑤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 구석기 시대상

연천 전곡리 유적: 전곡리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는 아슐리안형 양면 핵석기로서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세계 전기 구석기 문화가 유럽·아프리카의 아슐리안 문화 전통과 동아시아 지역의 짝개 문화전통으로 나누어진다는 기존의 H.모비우스 학설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1978년 발견)

-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나무 열매나 식물 뿌리를 채집하여 먹거나 뿔석기(예: 초기-만능 도구인 주먹도끼, 후기-슴베찌르개)로 만든 창이나 활을 이용하여 사냥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식량을 찾아 이동 생활을 하였으며,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① 철기 시대에 들어서(또는 청동기 후반기) 한반도에서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기존의 비파형 동검(요녕식 동검)을 넘어서 독자적인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②, ③ 계급이 발생한 청동기 시대부터 지배자의 무덤으로 거대한 고인돌을 축조하였고, 처음 벼농사가 시작되어 곡식의 이삭을 자르기 위하여 반달돌칼을 사용하였다.

④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고 원시적 수공업이 나타났다.

2.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여러 대신(大人)과 왕은 몰래 [연개소문을] 죽이고자 논의하였는데 일이 새어나갔다. [연개소문은] 부병(部兵)을 모두 모아놓고 마치 군대를 사열할 것처럼 꾸몄다. …… 손님이 이르자 모두 삼해하니, 1백여 명이었다. [그리고] 말을 달려 궁궐로 들어가 왕을 시해하였다. …… [연개소문은] 왕계(王弟)의 아들인 정(正)을 세위 왕으로 삼고 스스로 막리지(莫離支)가 되었다.

-「삼국사기」-

589	612	618	645	660	676
(가)	(나)	(다)	(라)	(마)	
수의 중국 통일	살수 대첩	당의 건국	안시성 전투	황신벌 전투	기벌포 전투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 고구려 연개소문의 집권(642)

영류왕(618~642) 때에 천리장성 수축을 주관하던 동부대인 연태조의 아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자신을 제거하려는 영류왕을 비롯한 여러 대신을 제거하였다(642). 그 후 그는 보장왕을 내세우고 대막리지로 독재 권력을 휘둘렀다.

보장왕 2년(643)에는 왕실이나 각 귀족집단들과 연결되어있는 불교 및 유교에 대한 억압을 피하여 도교의 수입을 강력히 당에 요청하자, 당 태종은 도사 속달(叔達) 등 8인과 노자의 도덕경을 보냈었다.

그러나 곧 그는 대당·대신라 강경론을 추구하였다. 잦은 백제의 공격으로 고구려의 조력을 얻고자 찾아온 신라의 김춘추가 제안한 양국의 화평을 거부했고, 신라와의 관계를 개선하라는 당나라의 압력을 거부하고 사신을 가두어버리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645년 당의 대대적 공격을 맞아 안시성(성주 양만춘)에서 당의 침입을 물리치고, 나당 연합군이 660년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공격하였을 때에도 평양성에서 격퇴하였다. 그러나 665년 그의 사후(死後) 자식들의 권력다툼 내분(남생<->남건, 남산)으로 인해 남생의 당의 투항 동생 연정토의 신라 투항 등으로 고구려는 곧 멸망하였다(668).

3. (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동이 지역 중에서 가장 평탄하고 넓은 곳으로 토질은 옅은 오곡이 자라기에 알맞다. …… 12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에는 연일 크게 모여서 마시고 먹으며 노래하고 춤추는데, …… 이때에는 형옥(刑獄)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 준다.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에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그 발굽으로 길흉을 점친다.

- 「후한서」 -

(나) 그 나라의 넓이는 사방 2천 리인데,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으며 사람들은 산골짜기에 의지하여 산다. …… 혼인에 있어서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살다가 자식을 낳아 장성한 뒤에야 남자의 집으로 돌아온다. …… 금과 은, 재물을 모두 써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며,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는다.

- 「후한서」 -

- ① (가) -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 ② (가) - 박, 석, 김의 3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 ③ (나) -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④ (나) -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 ⑤ (가), (나) -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정답: ①

* 부여와 고구려

(가) 부여: 동이족 국가 중에서 가장 큰 넓은 영토를 갖고 있고,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며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보였다.

부여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의 대가(大加)가 있어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며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가(加)들은 왕을 추대하기도 하였고, 수해나 한해를 입어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묻기도 하였다.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꺼묻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부여의 풍속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것은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 주는 것으로 12월에 열렸다. 이 때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죄수를

풀어 주기도 하였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천 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나) 고구려: 압록강의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졸본(환인) 지방에서 출발하였다. 이 지역은 대부분 큰 산과 깊은 계곡으로 된 산악 지대였기 때문에 농토가 부족하여 힘써 일을 하여도 양식이 부족하여 건국 초기부터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하고 평야 지대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고구려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렸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 회의를 통하여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또, 고구려에는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 뒤쪽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돌아가는 제도인 서옥제라는 풍속이 있었다. 그리고 건국 시조인 주몽과 그 어머니 유화 부인을 조상신으로 섬겨 제사를 지냈고, 10월에는 추수감사제인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아울러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② 신라는 초기에 박, 석, 김씨가 돌아가며 왕위에 오르다가 내물왕(356~402) 대부터 김씨가 왕위를 독점세습 하였다.

③, ④ 동예에서는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고, 각 부족의 영역을 중히 여겨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⑤ 삼한에서 제사장인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 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사장의 존재에서 고대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4.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불교 인물 카드



(가)

- 생몰: 617년~686년
- 가계: 부(父) 담남, 자(子) 설총
- 주요 활동
 -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함.
 - 모든 진리는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주장함.

- ① 대승기신론소, 십문화쟁론을 저술하였다.
- ②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 ③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종을 정리하였다.
- ④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오천축국전을 지었다.
- ⑤ 당에서 귀국하여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정답: ①

* 원효(617~686)에 대하여

그는 일찍이 의상과 함께 당나라에 가던 도중, 해골 바가지 물을 마시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다)의 깨달음을 얻고, 왕실 중심의 귀족 불교 대신에 민중들에게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정토종)을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즉 계(戒: 불교 계율)를 잃어 설총을 낳은 이후로는 속인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자신을 소성거사라 하며 속인 행세를 하고 다녔는데, 광대들이 큰 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무애가(無碍歌)를 지어 부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나무아미타불만 외쳐도 서방정토에 갈 수 있다: 정토 신앙) 일반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그는 또한 불교의 사상적 이해 기준을 확립하였다. 그는 당시의 거의 모든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 '대승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 등을 저술하였고, 특히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一心) 사상을 바탕으로,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의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고자 불교의 여러 이론(異論)을 10문으로 정리한 '십문화쟁론'을 지어 화쟁(和諍) 사상을 정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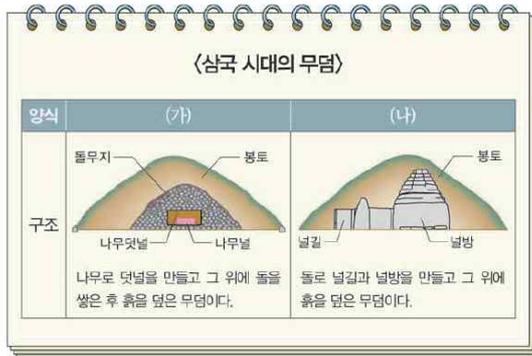
② 신라의 원광(541~630)은 세속 5계를 지어 화랑도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③ 의상(625~702)은 '화엄일승법계도'를 통해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④ 통일신라기 혜초(704~787)는 자신이 돌아본 인도와 중앙 아시아 여러 나라의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⑤ 신라 선덕여왕 때에 당에서 귀국한 자장율사의 건의로(643) 이민족을 물리치기 위해 황룡사 9층 목탑이 건립되었다(645).

5. (가), (나) 무덤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가) - 모줄임 천장 구조로 되어 있다.
- ② (가) - 무덤의 돌레돌에 12지 신상을 새겼다.
- ③ (나) - 대표적인 무덤으로 황남대총이 있다.
- ④ (나) - 내부의 천장과 벽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 ⑤ (가), (나) -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정답: ④

* 돌무지덧널 무덤과 굴식돌방 무덤

(가) 돌무지덧널 무덤

(나) 굴식돌방 무덤

고구려는 초기에 주로 돌무지무덤을 만들었으나, 점차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어 갔다. 굴식 돌방무덤은 돌로 널길과 널방을 만들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든 것이다. 천장은 대부분 모줄임 천장 구조이고 널방의 벽과 천장에는 벽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이런 굴식 돌방 무덤은 만주 집안, 평안도 용강, 황해도 안악 등지에 널리 있다. 무용도, 수렴도, 씨름도 등과 같은 고분 벽화는 당시 고구려 사람의 생활, 문화, 종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초기에는 주로 무덤 주인의 생활을 표현한 그림이 많고, 후기로 갈수록 점차 추상화되어 사신도 같은 상징적 그림으로 변하였다.

백제는 한강 유역에 있던 초기 한성 시기에 계단식 돌무지무덤을 만들었는데, 서울 석촌동에 일부가 남아 있다. 이는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라는 건국 이야기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웅진 시기의 고분은 굴식 돌방무덤 또는 널방을 무늬를 새긴 벽돌로 쌓은 벽돌무덤으로 바뀌었다. 벽돌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무령왕릉이 유명하다. 사비 시기에는 규모는 작지만 세련된 굴식 돌방무덤을 만들었다. 또한 백제 돌방무덤과 벽돌무덤에도 벽과 천장에 사신도와 같은 그림을 그려 넣기도 하였다.

신라는 초기에 거대한 돌무지덧널무덤을 많이 만들었으며, 삼국 통일 직전에는 굴식 돌방무덤도 만들었다.

신라 경주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주로 5세기 전후로 왕권이 강화되는 마립간 시대에 만들어진 무덤으로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과 꺼묻거리를 넣은 나무덧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냇돌을 쌓은 다음에 흙으로 덮었다. 도굴이 어려워 많은 꺼묻 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천마도가 출토된 천마총과 출(出)자형 금관 출토로 유명한 황남대총, 서봉총, 금관총 등이 있다.

통일 신라 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유행하였고, 고분 양식도 거대한 돌무지덧널 무덤에서 점차 규모가 작은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봉토 주위를 돌레돌로 두르고, 12지 신상을 조각하는 독특한 양식이 새롭게 나타났다(예: 김유신릉, 괘릉).

6. (가)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가)의 왕인 김구해가 왕비와 세 명의 아들, 즉 큰 아들인 노중, 둘째 아들인 무덕, 막내 아들인 무력을 데리고 나라의 창고에 있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행복하였다. [법흥]왕이 예로써 대접하고 상등(上等)의 벼슬을 주었으며, 본국을 식읍으로 삼게 하였다. 아들인 무력은 벼슬이 각간(角干)에 이르렀다.
- 『삼국사기』 -



* 금관 가야의 문화 유산

- 김수로에 의해 서기 42년에 건국된 금관 가야는, 신라 법흥왕 때에 마지막 왕인 구해왕이 나라를 바치고(532), 그 자손(김무력->김서현->김유신)들은 진골에 편입되었다

- 금관 가야(대성동 고분에 많은 문화유산 출토)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철을 중국의 군현(낙랑)과 왜에 수출하는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해상왕국으로 번영을 누려 낙동강 하류의 여러 가야를 대표하는 맹주국으로 등장하였다.

①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국보 119호): 경남 의령 출토. 연가 7년(延嘉七年)이라는 고구려 관련 연호가 새겨져 있는데, 고구려와 관련된 명기가 있는 불상이 남한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문화재이다. 정수리 위에 큼직한 육계가 있으며, 소라 모양의 보발(寶髮)이 있는데, 이는 중국 북조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② **백제 금동 대향로** (국보 287호): 백제의 수도인 사비(부여)의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이 향로는 도교적 이상향을 표현했으며, 백제의 높은 금속공예기술을 볼 수 있다.

③ **호우명 그릇**: 경주의 호우총에서 발굴된 것으로 이 그릇 밑 바닥에 “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호우십)”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④ **칠지도**: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대에 백제에서 만들어 일본에 보낸 칠지도는 강철로 만들고 금으로 글씨를 상감해 새겨 넣은 우수한 제품이다. 이소노가미 신궁 소장.

⑤ **대성동 57호분 출토 종장 판갑옷**

정답: ⑤

7.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장수왕] 15년,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삼국사기』-

(나) 고구려왕 거련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백제왕 경(慶)이 아들 문주를 [신라에]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군사를 내어 구해 주려 하였으나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백제가 이미 [고구려에] 함락되었고, 경(慶) 역시 피살되었다. -『삼국사기』-

- ①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
- ② 진흥왕이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 ③ 소수림왕이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 ④ 개로왕이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
- ⑤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정답: ④

*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

부왕인 광개토 대왕의 위업을 계승하여 고구려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왕은 장수왕(413~491)이었다. 그는 부왕인 광개토대왕릉의 비를 세워 그 업적을 기리었고(414), 영토가 넓어지자, 다시 안으로 체제를 정비할 필요를 느껴 수도를 국내성에서 대동강 유역의 평양성으로 옮기고(427), 남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였다.

이에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하였는데(나제동맹: 433년), 고구려의 침략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백제였다.

백제 개로왕(455~475)은 고구려의 남진정책을 막기 위해 북위(北魏)에 원병을 청했으나(결사표) 거절당하였고(472), 장수왕은 3만의 군대를 보내 백제 한성을 공격하여 개로왕(부여경)을 죽였다(475).

이로써 고구려는 한강 전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삼국간의 항쟁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백제는 개로왕의 아들 문주왕이 금강 유역의 웅진(공주)으로 도읍을 옮겼으나(475) 대외팽창이 위축되었다.

이 때의 고구려 영토는 아산만에서 소백 산맥을 넘어 영일만을 연결하는 지역에까지 미쳤는데, 이러한 사실은 중원고구려비를 통해 알 수 있다.

① 고구려 광개토 대왕(391~412)은 백제가 왜를 끌어들여 신라에 침입해오자, 신라 내 물왕의 군사원조 요청을 받아들여 군사 5만을 보내어 왜를 격퇴하였다(400).

② 신라의 최전성기를 이룬 진흥왕(540~576)은 청소년 단체인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였다(576).

③ 고구려 소수림왕(371~384)은 불교 수용(372), 태학 설립(372), 율령 반포(373)를 통해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⑤ 백제 최전성기를 이룬 근초고왕(346~375)은 평양성까지 진군하여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371).

8. (가)~(라)를 시행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삼국사기로 보는 통일 신라의 토지 제도

- (가) 교서를 내려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 (나) 내외(内外) 관료의 녹읍을 폐지하고, 해마다 조(租)를 차등있게 하사하고 이를 향식(恒式)*으로 삼았다.
- (다)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나누어 주었다.
- (라) 내외(内外) 관료에게 매달 지급하던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주었다.

* 향식(恒式): 항상 따라야 하는 형식이나 정해진 법식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다) - (라) - (나)
- ③ (나) - (라) - (가) - (다) ④ (다) - (나) - (가) - (라)
- ⑤ (라) - (가) - (나) - (다)

정답: ①

* 통일신라기 토지제도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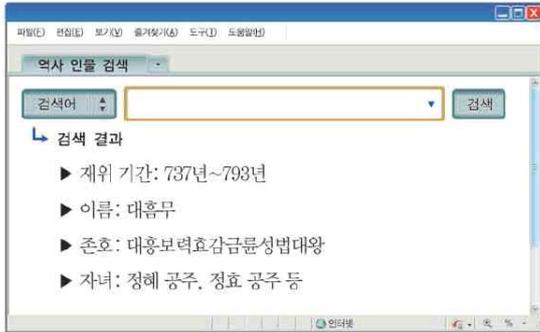
신라는 통일 직후 전제왕권이 형성되자 국가의 수입을 늘리고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토지제도를 정비하였다.

신문왕(681~692) 때에는 문무관료들에게 관료전(수조권만 지급)을 지급하고(687). 이전에 귀족에게 주었던 녹읍(국가에서 관료 귀족에게 지급한 일정 지역의 토지로서, 조세를 수취할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을 없앴다(689).

그리고 농민들에게도 정전을 주어 경작하게 하고(성덕왕, 722) 국가에 조세를 바치게 하였다. 이런 조치는 귀족에 대한 국왕의 권한을 강화하고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에 귀족들의 반발로 녹읍이 부활되었고(경덕왕, 757), 귀족들은 이를 토대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렸다.

9.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인안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② 장문휴를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 ③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
- ④ 대문예로 하여금 흑수 말갈을 정벌하게 하였다.
- ⑤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정답: ③

* 발해 문왕의 업적

7세기 말에 이르러 당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들은 전쟁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던 만주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길림성의 돈화시 동모산 기슭에 발해를 세웠다(698, 연호:천통).

고왕(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719~737, 대무예, 연호:인안) 때에는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발해의 세력 확대에 따라 신라는 북방 경계를 강화하였고, 흑수 말갈도 당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무왕은 동생 대문예로 하여금 흑수 말갈을 공격케 하였으나, 대문예는 이를 거부하고 당으로 망명하며 양국 관계는 파탄이 있다.

무왕은 먼저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등주 지방을 공격하는 한편,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732). 이 때 신라는 당의 사주를 받아 김사란을 시켜 발해 남부 국경을 공격하였으나 추위로 실패하였다(733). 결국 발해는 돌궐, 일본 등과 연결하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하여 동북 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어 문왕(737~793, 대흠무, 연호:대흥.보력) 때에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하고, 신라와도 상설 교통로를 개설하여 대립 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발해가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756), 동경 용원부(785)로 옮긴 것은 이러한 지배 체제의 정비를 반영한 것이다.

이 무렵, 발해는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인안(무왕), 대흥.보력(문왕)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발해는 9세기 전반의 선왕(818~830)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고, 지방제도도 정비하였다(5경 15부 62주). 이후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인들은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그러나 10세기 초 부족을 통일한 거란이 동쪽에서 압박해오고, 발해 내부 귀족들의 권력투쟁이 격화되어 발해의 국력이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 거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926).

10.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경재소를 두어 유향소를 통제하였어요.
- ②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어요.
- ③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였어요.
- ④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두었어요.
- ⑤ 관찰사를 보내어 관찰 고을의 수령을 감독하였어요.

정답: ④

* 9주 5소경이 설치된 통일신라의 지방통치

- 주(州)가 9개이고, 소경(小京)이 5개인 것을 통해 9주 5소경이 실시된 통일신라기 지방제도임을 알 수 있다.

- 통일 이후 신라는 지방 행정 조직을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하여 중앙 집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군사·행정상의 요지에는 5소경을 설치하여, 수도인 금성(경주)이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보완하고, 각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였다. 군사적 기능보다 행정적 기능을 강화하여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주 아래에는 군이나 현을 두어 지방관을 파견하였고, 그 아래의 촌은 토착 세력인 촌주가 지방관의 통제를 받으면서 다스렸다. 또, 향, 부곡이라 불리는 특수 행정 구역도 있었다. 한편,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하였고,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들을 일정 기간 서울에 와서 거주하게 하는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①, ⑤ 조선은 수령을 지휘, 감독하고 백성의 생활을 살피기 위하여 전국 8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고, 지방 사람들의 향촌 자치기구인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중앙의 현직 관료로 하여금 연고지의 유향소를 통제하게 하는 경재소를 설치하였다.

② 백제 웅진 시기 무령왕(501~523)은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③ 고려는 성종 때에(983) 지방 주요 거점에 12목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11.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넷째 아들 금강은 몸이 크고 지력이 많았다. (가) 이/가 특별히 그를 총애하여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다. 그의 형 신검, 양검, 용검 등이 이를 알고서 걱정하고 변민하였다.
- (가) 이/가 요청하여 말하기를, “늙은 신하가 멀리 바다를 건너 성군(聖君)의 교화에 투항하였으니, 바다건대 그 위엄에 기대어 역적인 아들을 베고자 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 ①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 ②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
- ③ 후당,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 ④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 ⑤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정답: ③

* 후백제를 세운 견훤

상주의 군인 출신 견훤은 황해안의 해상 세력과 도적 떼 등을 자신의 군사 기반으로 흡수하여 자립하였다. 견훤은 나주를 거쳐 무진주(광주)를 점령한 후 북상하여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다(900). 그는 중국(후당, 오월)과 외교관계를 맺는 등 국제적 감각도 갖추었다.

그는 927년 대야성을 점령하고 이어 신라 수도 금성을 급습하여 포석정에서 경애왕을 자결케 하였고, 신라를 도우러 온 왕건의 고려군을 공산(대구) 전투에서 대패시켰다. 그러나 왕건의 고려는 신라인의 신망을 얻었고, 그 결과 신라 경순왕의 항복을 받아 전쟁 없이 신라를 통합할 수 있었다(935).

한편 후계 문제를 놓고 그와 갈등하던 맏아들 신검이 배다른 형제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에 감금하자 견훤은 탈출하여 고려로 귀순하였고, 후백제 정벌에 앞장섰다. 결국 일리천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은 신검의 후백제군을 크게 파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고, 견훤도 곧 사망하였다(936).

① 신라 중대 전제왕권을 확립한 신문왕(681~692)은 김흠돌의 모역 사건(681)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정치 세력을 다시 편성하였다

②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김부)은 고려에 투항(935) 후 경주 지역의 사심관(중앙관료로 출신지의 부호장 이하의 향리를 관장)으로 임명되었다.

④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 기반을 다져, 도읍을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마진(연호: 무태)로 바꾸었다가(904), 다시 태봉(연호: 수덕만세->정개)으로 바꾸었다(911).

⑤ 고려 태조(918~943) 왕건은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12.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쌓기가 처음으로 과거 제도의 실시를 건의하였고, 마침내 지공거가 되어 시(詩)·부(賦)·송(頌)·책(策)으로써 진사 감과에 최심 등 2인, 명경업(明經業)에 3인, 복업(卜業)에 2인을 선발하였다.

(나) 최승로가 상서하기를, “..... 지금 살펴보면 지방의 세력자들은 매번 공무를 핑계 삼아 백성을 침탈하므로 백성이 그 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외관(外官)을 두소서.”라고 하였다.

- ① 국가 주도로 해동통보가 발행되었다.
- ②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정방이 폐지되었다.
- ③ 관학 진흥을 위해 전문 강좌인 7제가 개설되었다.
- ④ 호구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호패법이 실시되었다.
- ⑤ 처음으로 직관·산관 각 품의 전시과가 제정되었다.

정답: ⑤

* 고려 광종의 과거제 실시(958)와 성종의 시무 28조 건의(982) 사이의 역사적 사실

- 광종(949~975)은 후주 출신 귀화인 쌓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 (958),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다.

- 고려 성종(981~997)은 즉위 후 국가의 오랜 폐단을 없애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하여 중앙의 5품 이상의 관리들로 하여금 그 동안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정책을 건의하는 글을 올리게 하였다(5조 치적평).

이에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의 진흥과 외관 파견,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의 억제를 요구하고,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르는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하여 유교 중심으로 통치체제를 정비하였고,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였다(983).

① 고려 숙종(1095~1105) 때에 국가 주도로 삼한통보·해동통보(1102), 해동중보(1103) 등의 동전과 호리병 모양의 활구(은병, 1101)라는 은전을 만들었다.

② 최우 무신정권 때에 설치된(1225) 사적 인사행정 기구로 왕권을 제약하던 정방은, 충선왕(1298)과 공민왕(1352, 1356) 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폐지되었으나, 공식적으로는 위화도 회군 이후인 창왕 때에 공식 폐지되었다(1389)

③ 고려 예종(1105~1122) 때에 관학(국자감) 진흥을 위하여 무학재를 포함한 전문 강좌인 7제를 설치하였다(1109).

④ 조선 태종(1400~1418)은 호구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16세 이상의 남자면 누구나 가지고 다녀야 하는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1402)

⑤ 고려 경종(975~981)은 관리들의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직관(현직)·산관(관직이 없고 관계만 보유) 모두에게 인품과 관품(4색 공복 기준)에 따라 전지(논·밭)와 시지(임야)의 수조권 토지를 분급하는 전시과 제도를 처음 마련하였다(시정 전시과, 976).

13.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승려 출신으로 구성된 향마군이 있었다.
- ② 여진을 정벌하여 동북 9성 일대를 확보하였다.
- ③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설치되었다.
- ④ 경대승이 신변 보호를 위해 만든 사병 조직이다.
- ⑤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항쟁하였다.

정답: ⑤

* 삼별초의 항쟁

삼별초는 1219년(고종 6) 최충헌의 정권을 계승한 최우가 도둑 방지 등 치안유지를 위해 설치한 야별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별초란 '용사들로 조직된 선발군'이라는 뜻이다.

그 뒤 야별초에 소속한 군대가 증가하자 이를 좌별초·우별초로 나누고, 몽골 병사와 싸우다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한 병사들로 신의군을 조직, 이를 좌·우별초와 합하여 삼별초의 조직을 만들었다.

삼별초는 경찰 및 국왕 시위를 하는 공적인 준군사집단이며 동시에 무신정권의 전위로서 다분히 사병적인 요소도 있었다. 그러나 항몽전에서는 그 선두에서 유격전술로 몽골병을 괴롭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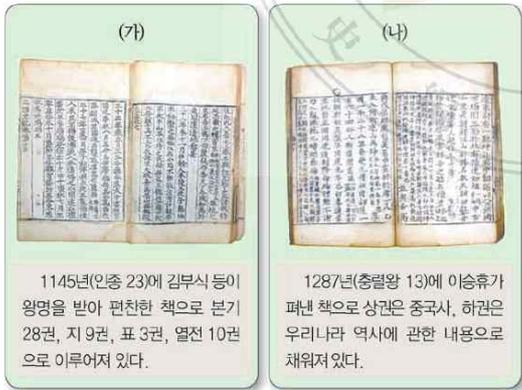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 강화가 성립되어 고려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 승화후 온(溫)을 내세워 배중손의 지휘 하에 진도에서 항쟁하였으나 김방경, 홍다구가 이끄는 여몽연합군에 의해 패퇴하였다. 배중손이 진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승화후 온이 생포되어 죽자 김통정이 삼별초를 지휘하며 제주도로 옮겨가며 개경정부 및 몽골과 대항하여 항쟁하다 결국 진압되었다(1270~1273).

①, ② 12세기 초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였다. 고려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기(기병), 신보(보병), 향마(승병)군으로 구성된 별무반(1104)을 편성한 다음,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③ 고려 정종 때에 거란을 대비하여 특수 부대인 광군을 편성하였다(947)

④ 정중부를 타도한 경대승(1179~1183 집권)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숙위 사병으로 도방을 설치하였다(1179). 도방은 최충헌 정권에도 이어져 신변경호를 담당하였다.

14. (가), (나)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가) -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하였다.
- ② (가) -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 등을 수록하였다.
- ③ (나) -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 ④ (나) -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⑤ (가), (나) -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 형태로 서술하였다.

정답: ③

* 삼국사기와 제왕운기

(가) **삼국사기**: 고려 인종 때에 김부식 등이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1145).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서로서, 고려 초에 편찬된 구삼국사(단군조선-고구려-고려로 이어져 온 역사계승 의식으로 추정)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본래 기전체는 군주에 대한 기록인 본기, 제후에 대한 기록인 세가, 제도.문물.사회.경제.자연에 대한 기록인 지(志), 신하들에 대한 기록인 열전, 연표인 표(表)로 구성되었는데 삼국사기는 세가가 없는 기전체이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고구려 계승의식을 뚜렷하게 표방하였으나, 중기에 이르러 신라 계승의식이 강화되었는데, 삼국사기에는 신라 계승의식이 더 많이 반영되었다.

(나) **제왕운기**: 원의 간섭기인 충렬왕 13년에 이승휴가 써서 국왕께 찬진한 '제왕운기'(1287)는 운문체로 서술한 역사시로 상(上)은 중국사, 하(下)는 한국사를 7언시, 5언시로 중국사(전설시대~원)와 본국(단군~충렬왕)의 역사를 병렬적(대등하게)으로 대비해 서술하였다.

3한, 3국, 예맥, 부여 등 모든 고대국가들이 모두 단군의 후손이라 하고, 그 생활권을 요동 이동 지역으로서, 중국과 다른 또 하나의 천하세계로 파악하였으며, 발해를 본국 역사에 포괄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역사를 단군 고조선 건국에서부터 서술하면서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하는 자주성을 나타내었다.

① 조선은 국왕이 죽으면 다음 국왕 때 춘추관을 중심으로 실록청을 설치하고 사관이 국왕 앞에서 기록한 사초, 각 관청의 문서를 모아 만든 시정기 등을 종합, 정리하여 실록을 편년체로 편찬하였다.

② 충렬왕 때에 일연이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쓴 삼국유사(1281)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④ 역사서로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⑤ 고려 무신정권기에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1193)은 고구려 건국의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로서, 고구려의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15.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역사 용어 해설

(가)

1. 개요
토지와 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기구로, 불법적으로 빼앗긴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본래 신분으로 되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1269년(원종 10)에 처음 설치되었고, 이후 폐지와 설치를 거듭하였다.

2. 관련 사료
신돈이 (가) 을/를 설치할 것을 청하고 스스로 판사(判事)가 되었다. …… 권세가와 부호 중에 빼앗았던 토지와 노비를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자가 많아, 온 나라 사람들이 기뻐하였다.

- ① 원 간섭기에 첨의부로 격하되었다.
- ② 고려 말에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 ③ 소속 관원이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 ④ 공민왕 때 내정 개혁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다.
- ⑤ 최씨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 기구로 활용되었다.

정답: ④

* 전민변정도감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은 고려 후기 권세가에게 점탈된 토지와 농민을 바로잡고 국가재정 기반 증대를 위해 설치된 임시관서로 1269년(원종 10) 최초로 설치되었다. 그 뒤 1288(충렬왕 14년), 1301(충렬왕 27년), 1352(공민왕 1년), 1366(공민왕 15년), 1381(우왕 7년), 1388(우왕 14년)에 각각 설치되었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또는 유명무실화되어 폐지되었다.

이 중에서도 공민왕(1351~1374)이 무당파인 승려 신돈을 시키어 설치한 전민변정도감(1366)이 가장 유명하다. 이 때 권문세족에 의해 부당하게 겸병당한 토지와 강압에 의해 노비가 된 사람을 원래의 상태로 많이 되돌렸으나, 같은 개혁 추진 세력인 신진사대부들의 비판과 그의 실각으로 실패하였고, 공민왕 사후 우왕(1374~1388) 때에는 이인임, 임견민 등의 권문세족의 횡포가 더욱 심해져 급진파 사대부들이 전제 개혁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① 원의 간섭기인 충렬왕 때에 관제 격하가 있어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합쳐 첨의부를 설치하고, 6부를 4사(전리사, 군부사, 판도사, 전법사), 중추원을 밀직사로 명칭을 바꾸며 격도 낮아졌다(1275).

②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2품 이상의 고위 관리인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국방문제와 같은 국가 중요문제를 논의하는 도병마사가, 고려 후기 충렬왕 때에 도평의사사로 개칭되었고(1279), 그 구성원 수도 증가하여 귀족 연합정치의 성격을 띠며 왕권을 제한하였다.

③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은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3품 이하)와 함께 대간으로 불리우며 서경·간쟁·봉박을 담당하였다.

⑤ 고려 최씨 무신정권을 수립한 최충헌은 서정을 감시하고 세정·비위 규찰을 명목으로 최고 집정부의 구실을 하는 교정도감(1209)을 설치하여 권력을 행사하였다.

16. 다음 대화의 왕이 재위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가 주조되었다.
- ②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 ③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이 간행되었다.
- ④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되었다.
- ⑤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내편이 편찬되었다.

정답: ③

* 동국통감이 편찬된 성종 대의 문화

조선 성종(1469~1494)은 건국 이후의 문물 제도를 정비하고, 경국대전(1485)의 편찬을 마무리(1484)하여 반포함(1485)으로써 이후 조선 사회의 기본 통치 방향과 이념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조선 왕조의 통치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는 호학 군주로 예문관에서 집현전 후신으로서의 홍문관(1478)을 분립시켜 경연을 전담하게 하였다. 여기에 김종직 등의 사림 인물들을 대간으로 임명하여 총애하는 등 홍문관을 학문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였다. 그 외에 독서당제(1471)를 운영하여 젊은 문신들의 학문연구를 고취하고, 성균관에 존경각을 짓고 경적을 소장시켜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였다.

경제적으로는, 기존의 과전법~직전법 하에서 수조권을 받은 양반 관료가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때에는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관수관급제, 1470). 이에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종의 가장 큰 업적은 여러 국가적 차원의 편찬 작업이 완성되는 데, 서거정 등이 삼국이래로의 시문선집 <동문선>(1478), 노사신을 시키어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1481), 역사서로는 서거정을 시키어 삼국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삼국사절요>(1476)와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사서 <동국통감>(1485)을 편찬하였고, 성현 등은 음악 이론서인 <악학궤범>(1493)을 편찬하였으며, 신숙주 등은 국가의례서인 <국조오례의>(1487)를 완성하였다.

①, ④ 태종(1400~1418) 때에는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계미자를 주조하였고(1403) 김사형, 이회 등을 시키어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402)를 만들었다.

② 광해군(1608~1623)은 전란 중에 질병이 널리 퍼져 인명의 손상이 많았던 경험을 되살려,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1610)을 편찬하게 하였다.

⑤ 조선 초기 세종(1418~1450) 때에 만든 칠정산(1442)은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로 하여 만든 역법서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

17.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이 책은 (가)이/가 태조 이성계에게 지어 바친 법전으로, 경제육전과 정국대전(1394)의 모체가 되었다고 평가 받는다. 이 책에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가)은/는 도성의 축조 계획을 세우고, 새 궁궐의 이름을 경복궁이라고 짓는 등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①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 ② 계유정난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 ③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 ④ 기축봉사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다.
- ⑤ 성학십도에서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하였다.

정답: ①

* '조선경국전'을 지은 정도전에 대하여

조선 왕조 개창의 1등 공신이며 급진파 사대부의 대표인 삼봉 정도전(1342~1398)은 고려 말 공민왕 대에 이색을 중심으로 학문적 유대관계를 통해 교유해온 신진사대부들 중 하나로 신돈의 개혁정치에 참여하여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1383년 신흥 무인세력인 이성계와 만나 제휴하였고, 이후 이인임 권문세족 정권과 위화도회군 이후에는 최영 세력을 몰아내고 신진사대부들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고려왕조를 지속하려는 이색, 정몽주 등의 온건파 사대부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는 조준 등과 함께 과전법(1391)을 주도하고 온건파들을 제거하고 결국 역성혁명의 입장을 주도하며 조선 건국에 앞장섰다.

조선 건국 이후에는 초창기의 문물 제도를 갖추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태조 때(1394) 교통과 국방의 중심지인 한양으로 도읍을 옮

긴 후, 도성을 쌓고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 종묘, 사직, 관아, 학교, 시장, 도로 등을 건설하여 도읍의 기틀을 다졌는데 이 때 궁궐과 종묘의 위치 및 도성의 기지를 결정하고 궁·문의 모든 칭호를 정했다

또한 유교적 통치 규범을 성문화하기 위한 법전의 편찬에 힘써 조선경국전(1394)과 경제문감(1395)을 편찬하였고, 민본적 통치 규범을 마련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고, 유학의 입장에서 불교의 진리를 논파하고 배척을 주장한 불씨잡변(1394)을 통하여 불교를 비판하였으며,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시켰다.

그러나 명과의 갈등(표전문 사건의 당사자) 속에 남은(1354~1398) 등과 요동 정벌을 추진하며 세자 방석을 후원하다가, 1차 왕자의 난(1398)에서 이방원에 의해 처형되었다.

② 수양대군(세조)과 한명회, 권람 등이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제거하며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 계유정난이다(1453)

③ 세종 때(1443)에 통신사의 서장관으로서 일본을 방문했던 신숙주는 해동제국기를 저술하여 성종 때(1471)에 간행하였다. 여기에는 일본국과 유구국(琉球國)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었다.

④ 서인의 산림 지도자인 송시열(1607~1689)은 효종 즉위 직후 기축봉사(1649)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며 북벌 운동을 주도하였다.

⑤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이황(1501~1570)은 '성학십도'에서 군주 스스로가 성학을 따라야 되며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하였다.

18.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임금이] 전지하기를, “..... 지금 김일손이 찬수한 사초에 부도한 말로써 선대의 일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또한 그의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실었도다. 대간, 홍문관으로 하여금 형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나) 대사헌 조광조 등이 아뢰기를, “..... 반정 때에 공이 있었다면 기록되어야 하였으나, 이들은 또 그다지 공도 없습니다. 무릇 이들을 공신으로 중히 여기면 공(功)과 이(利)를 탐내게 되니 임금이 죽이고 나라를 빼앗는 일이 다 이것에서 비롯됩니다.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한다면 먼저 이(利)의 근원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 ①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윤임이 제거되었다.
- ② 인현 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③ 공신 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 ④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 ⑤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김굉필 등이 처형되었다.

정답: ⑤

* 무오사화(1498)와 위훈삭제 사건(1519) 사이의 역사적 사실

성종 때부터 중앙에 진출하면서 사림은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과거를 통하여 중앙에 진출한 사림 세력은 주로 전랑과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였다.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림 세력을 중용하였기 때문에,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이어서 연산군은 훈구 대신과 사림을 모두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특히, 사림 세력의 분방한 언론 활동을 억제하였다. 이에 따라, 무오사화(1498, 김일손의 김종직 조의제문 사초 기재 문제), 갑자사화(1504, 폐비 윤씨 사사 문제)를 겪으면서 영남 사림의 대부분이 몰락하였다. 연산군은 이후 언론을 극도로 탄압하고 재정을 낭비하는 등 폭압적인 정치를 단행하다가 결국 중종반정으로 쫓겨났다(1506).

중종은 사림을 다시 등용하여 유교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김굉필의 문인 조광조가 중용되면서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들은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하면서 경연의 강화, 언론 활동의 활성화, 소격서의 폐지, 소학의 보급, 방납의 폐단 시정 등 급진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훈삭제로 인한 반정공신들의 반발로 말미암아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은 대부분 제거되었다(기묘사화, 1519).

그 뒤 중종이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다시 사림을 등용하기도 하였으나, 명종이 즉위하면서 윤원형(소윤), 윤임(대윤) 등 외척간의 권력다툼에 휩쓸려 사림 세력은 윤임 일파와 함께 또다시 정계에서 밀려났다(을사사화, 1545).

그러나 사림 세력은 서원과 향약을 통하여 향촌 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해 나가다, 1567년 선조가 즉위하면서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였으나,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김효원과 심충겸)와 공론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되었다(1575).

② 기사환국(1689): 남인이 원자(장희빈 소생) 정함에서 서인을 몰아내고 집권,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송시열 등이 사사됨.

③ 인조 반정(1623) 과정에서 공이 가장 큰 이괄이 2등 공신으로 봉해지자 불만을 품고 난을 불러 일으키고 도성이 함락되고 국왕이 공주로 피난가기 까지도 하였다(1624).

19. (가) 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해상공국을 통해 보호받았다.
- ② 금난전권이라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 ③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였다.
- ④ 책문 후시를 통해 대청 무역을 주도하였다.
- ⑤ 포구에서 중개, 금융·숙박업 등에 주력하였다.

정답: ②

* 조선의 시전상인

조선은 고려보다도 상업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1394년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종로 거리(운종가)에 상점가를 만들었다. 여기에 개경에 있던 시전 상인을 한양으로 이주시켜 장사하게 하는 대신에 점포세와 상세를 거두었다. 시전 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이들 시전 중에서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베, 무명을 파는 점포가 가장 번성하였는데, 후에 이를 육의전이라 하였다. 또, 이들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시서를 두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사상(私商)들이 종루, 칠패, 배오개(이현), 송파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시전의 상권을 잠식하자 시전상인들은 국역을 담당하는 대가로 사상인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인 금난전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상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정부는 통공 정책을 실시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1791, 신해통공) 이들의 활동은 다소 위축되었다.

① 지방 장사에서 활동하는 보부상의 조직은 초기에는 보상(보짐장수)과 부상(등짐장수)이 다른 조직체계를 가지고 발달하였으나, 개항 이후 외국 상인들에게 점차 상권을 위협받게 되자 보부양단을 통합하여 해상공국(1883)이 설치되어 민씨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자유상업에 걸림돌이 되었다

③ 개성의 송상은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고 인삼을 재배·판매하였으며, 대외 무역에도 종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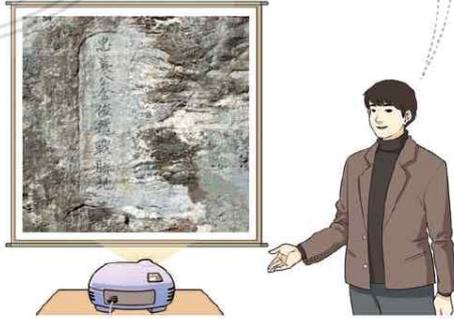
④ 의주의 만상은 책문후시를 통해 대청 무역을 주도하면서 재화를 많이 축적하였다.

⑤ 객주나 여각은 각 지방의 선상이 물화를 싣고 포구에 들어오면 그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부수적으로 운송, 보관, 숙박, 금융 등의 영업도 하였다.

20. 밑줄 그은 '이 전쟁'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3점]

사진은 김준룡 장군 전승지 및 비입니다. 김준룡 장군은 이 전쟁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으로 피란한 국왕을 구하기 위해 근왕병을 이끌고 두르하치의 사위인 적장을 사살하는 등의 전공을 세웠습니다.



- ① 북방에 4군 6진이 개척되었다.
- ② 이종무에 의해 대마도가 정벌되었다.
- ③ 청에 당한 치욕을 갚자는 북벌론이 전개되었다.
- ④ 제해약조가 체결되어 세경선의 입항이 허가되었다.
- ⑤ 외적에 대비하기 위해 비변사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정답: ③

* 병자호란(1636)의 영향

인조반정(1623)을 주도한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여 후금을 자극하였다.

또한 후금의 침입에 대비해 평안도에 주둔 하였던 이괄이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난(1624)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자, 그 잔당들이 후금으로 피신하여 조선 침입을 종용하자, 후금은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쳐들어왔다(1627). 이를 정묘호란이라 한다.

정봉수와 이립 등은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합세하여 적을 맞아 싸웠다. 특히, 정봉수는 철산의 용골산성에서 큰 전공을 거두었다. 후금의 군대는 보급로가 끊어지자 강화를 제의하여 형제관계의 화의와 조공과 국경에서의 관무역을 조건으로 철군하였다.

그 후, 후금은 세력을 더욱 확장하여 국호를 청이라 고치고, 군신 관계를 맺자며 다시 대군을 이끌고 침입해 왔다(1636.12). 이를 병자호란이라 한다.

인조는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45일간 항전하였으나, 청과 싸우자는 주전파(김상헌과 윤집·오달제·홍익한·삼학사)와 강화를 맺자는 주화파(최명길 등)의 논쟁 속에 결국 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강화(3배 9고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짚음)를 맺었다.

그 동안 조선에 조공을 바쳐 왔고, 조선에서도 오랑캐로 여겨 왔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에 거꾸로 군신 관계를 맺게 되고, 임금이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는 사실은 조선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후 효종(1649~1659) 때에 오랑캐에 당한 수치를 씻고(복수설치: 復讐雪恥), 임진왜란 때 도와 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재조지은: 再造之恩) 청에 복수하자는 의식이 대두되어 북벌 운동이 준비되었다.

①, ②, ④ 세종(1418~1450) 때에 최윤덕 장군을 시켜 여진족을 토벌하고 압록강 상류 지역을 확보하여 북서 4군을 설치하고(1443), 김종서 장군을 시키어서는 두만강 하류 일대까지 확보하여 동북 6진을 설치하였다(1449).

왜구에 대해서는 이종무를 시키어 이들의 소굴인 대마도를 토벌하였고(1419), 아울러 왜구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해안의 부산포, 제포(진해), 염포(울산) 등 3포를 개방(1426)하여 무역을 허용하고, 대마도주와 계해약조를 맺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하였다(1443, 세경선 50척, 세사미 200석 이내).

⑤ 중종 때 3포 왜란(1510)이 일어나자 지변사 재상을 소집하였고, 1517년 임시기구로 비변사를 처음 설치하여 군사 문제를 전담하게 하였다.

21. 밑줄 그은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좌의정 이원익의 권의로 이 법을 비로소 시행하여 백성의 토지에서 미곡을 거두어 서울로 옮기게 했는데, 먼저 경기에서 시작하고 드디어 선혜청을 설치하였다. …… 우의정 김육의 권의로 충청도에도 시행하게 되었으며 …… 황해도 관찰사 이언경의 상소로 황해도에도 시행하게 되었다.

- 「만기요람」 -

- ① 양반에게도 군포를 납부하게 하였다.
- ②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부과하였다.
- ③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를 거두어 군사비로 충당하였다.
- ④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주에게 결작을 징수하였다.
- ⑤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정답: ⑤

* 공납의 개혁 대동법

조선 후기들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농민들의 공납(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고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광해군 때에 경기도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고(1608, 이원익의 건의),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1659년 김육의 건의로 삼남 지방으로 확대, 1708년 완결, 평안, 함경도와 제주도 제외).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 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상공만 폐지,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존속). 주무 관청은 선혜청이다.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또한 조세를 현물 징수에서 쌀, 베, 돈으로 대신됨으로 조세의 금납화를 촉진하였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어용 상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농민도 대동세를 내기 위하여 토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쌀, 베, 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① 흥선 대원군은 호포제를 실시하여 종래 상민에게만 거둬들이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였다(1871).

② 조선 초 세종 때에 공법(貢法)을 마련하였다(1444). 이에 따라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③, ④ 조선 후기 균역의 개혁인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어세, 염세, 선세를 균역청에서 관할케 하는 보충책으로 해결하였다

22.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이 그림은 김득신이 그린 풍속화로 병아리를 몰고 도망가는 고양이와 이에 놀란 닭, 긴 담뱃대로 이를 제지하려는 남성의 모습 등이 묘사되어 있다. 조용한 여염집에서 벌어진 소동을 그렸기 때문에 파적도(破寂圖)라 불리기도 한다.

- ① 생선을 팔고 상평통보를 받는 상인
- ② 장사에서 탈춤 공연을 벌이는 광대
- ③ 시사(詩社)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 ④ 직전법에 의해 수조권을 지급받는 관리
- ⑤ 고추, 인삼 등을 상품 작물로 재배하는 농민

정답: ④

* 풍속화가 유행한 조선 후기 사회모습

조선 후기에 유행한 풍속화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정경과 일상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어 회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도화서 화원 출신인 김홍도(1745~?), 신윤복(1758~?), 김득신(1754~1822) 등이 유명하다.

① 조선 후기 숙종 대에 상평통보(1678)가 주조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누구나 동전인 상평통보만 가지면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다.

② 조선 후기에는 판소리와 마을극의 일부로서 공연되어 인기를 얻었던 탈춤(탈놀이)이 유행하여 지방의 정기 시장인 장사에서 자주 공연되었다.

③ 조선 후기에는 중인층과 서민층의 문학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동호인들이 모여 시사(詩社)를 조직하였다.

④ 조선 초기 과전법(1391) 하에서는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휴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조 때에 직전법(1466)으로 바꾸어 수신전과 휴양전을 폐지하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⑤ 농민은 쌀 이외에도 목화, 채소, 담배, 인삼, 약초 등의 상품작물을 재배하여 팔았다. 또한 해외 원산지 작물인 고추, 고구마, 감자, 토마토 등도 전래되었다.

23.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방금 남연군방(南延君房)의 차지중사(次知中使)가 아된 바를 들으니, 덕산의 묘지에 서양놈들이 침입하여 무덤을 훼손한 번고가 있었다고 하니 아주 놀랍고 황송한 일이다. …… 조정에서 임기응변의 계책을 세웠다가 도신(道臣)의 장계가 올라오기를 기다려 논의하도록 하라.

1862	1866	1871	1876	1884	1894
(가)	(나)	(다)	(라)	(마)	
입술 농민 봉기	병인 양요	신미 양요	강화도 조약	갑신 정변	갑오 개혁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②

* 오페르트 도굴 사건(1868)

흥선 대원군은 처음 천주교에 비교적 관대하였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천주교 선교사를 통하여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흥선 대원군은 유생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866년부터 6년 동안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다(병인박해). 이로 인해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8천 여 명의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프랑스는 바로 이 병인박해 때의 자국의 선교사 처형을 구실로 1866년 9월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였다(병인양요).

프랑스군은 군함 7척에 수병 600여 명을 승

선시키고 조선을 침략하여 한강을 봉쇄하고, 그 중의 한 부대는 강화도 갑곶진에 상륙한 뒤 우수한 화력으로 강화읍을 점령하여 외규장각 등을 불태우고 의궤와 금, 은 등을 약탈해 갔다.

한성군이 지휘하는 군대는 서울로 진격하던 프랑스군을 문수산성에서 방어하였고, 양헌수가 거느린 군대는 정족산성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그 결과 조선을 침략한 프랑스 함대가 모두 퇴각하였다.

병인양요 후 오페르트를 비롯한 서양인들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충남 예산군 덕산 소재)의 무덤을 도굴하려다가 실패하고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다(1868).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서양인들을 배척하는 기운이 더욱 거세어졌다.

병인양요에 앞서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 가까이 다가온 적이 있었다. 이 배에 탄 서양 사람들이 통상을 요구하자, 관리들은 외국과의 통상을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물러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배에서 내려 민가를 약탈하고 관리를 잡아 가두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분노한 평양의 관민은 제너럴 셔먼 호를 불살라버렸다(제너럴 셔먼호 사건, 1866.8).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함대가 강화도에 침입하였다. 이를 신미양요라 한다(1871.6). 이 때 어재연이 이끈 조선군은 광성보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한때 광성보를 점령하였던 미군은 조선 군민의 강력한 저항에 버티지 못하고 물러갔다.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서양의 침략을 물리친 조선 정부는 서양과의 통상 수교를 반대하는 정책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웠다(1871).

24. 다음 가상 인터뷰의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 ② 국경을 정한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였다.
- ③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자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 ④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였다.
- ⑤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정답: ④

* 영조의 업적

영조(1724~1776)는 정치적 조정력을 통해 어느 붕당이든 간에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영조는 먼저, 붕당을 만드는 자는 영원히 정치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노론의 장기 집권에서 오는 폐단을 막고자 노론의 강경파를 몰아 내고 소론과 남인의 온건파를 고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펼쳐나갔다. 그리고 영조는 탕평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한양의 성균관에 붕당간의 다툼을 금하는 탕평비를 세웠다(1742).

탕평책의 실시로 소론과 남인이 진출하게 되면서 노론의 독주가 어느 정도 견제되었으며,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왕권도 강화되어 갔다.

영조는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과 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먼저, 백성들의 균역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균역법(균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줌)을 시행하고 국가 재정을 개혁하였다. 또, 형벌 제도를 완화하여 지나친 형벌이나 악형을 금지하고, 신문고를 부활하여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법적인 '속대전', 의례서인 '속오례의', 역대문물을 정리한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 등을 편찬하여 문물제도를 정비하였다. 서울 도성과 관련해서는 준천사를 설립(1760)하여 청계천을 준설(1760~1773)하여 수해를 방지코자 하였다.

① 조선 성종(1469~1494)은 왕과 신하가 함께 모여 유학을 논의하고 시책을 나누는 경연을 활성화시켰으며, 집현전을 계승하여 언론기관으로서 홍문관을 설치하였다(1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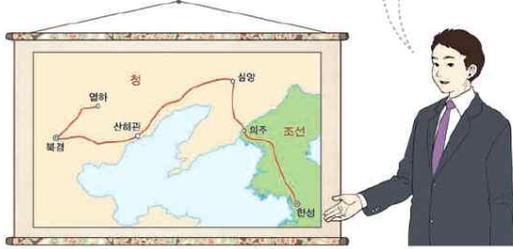
② 조선 숙종(1674~1720) 때에 만주 간도 지역을 놓고 청과 국경 분쟁이 일어났자,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압록강과 토문강을 국경 경계로 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1712).

③ 고종 때에 흥선 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되살리고자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중건하였다(1865~1872).

⑤ 철종 때에 임술농민봉기(1862)를 진압하고, 민란의 원인인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고자 박규수의 건의에 따라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으나,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하였다.

25.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제시된 지도는 그가 연행사를 따라서 열하에 이른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연암이라는 호를 쓴 그는 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여행기로 남겼습니다.



- ①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 학파를 형성하였다.
- ② 서얼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임명되었다.
- ③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지적하였다.
- ④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 ⑤ 우서에서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내세웠다.

정답: ③

* 증상적 북학파 실학자 연암 박지원

조선 후기인 18세기 후반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주장하는 실학자가 나타났다.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부국강병과 이용후생에 힘쓰자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들을 이용후생 학파 또는 북학파라고도 한다.

대표적 인물인 연암 박지원(1737~1805)은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하면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허생전, 양반전, 호질 등의 소설 등을 통해 양반 문벌 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였다.

① 18세기 초에 정제두(1649~1736)는 몇몇 소론 학자가 명맥을 이어가던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② 정조의 붕당 뿐만 아니라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 인재등용 정책에 따라 서얼 출신의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이수 등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다.

④ 북학파 실학자인 홍대용(1731~1783)은 손수 혼천의를 만들어 천체를 관측하여 그의 문집 답헌서의 <의산문답>에서 지구가 하루에 한번씩 돈다는 지전설을 주장하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하였다.

⑤ 상공업 중심 개혁론의 선구자인 유수원(1694~1755)은 <우서>를 저술하여 농업의 전문화와 상업적 경영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며,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강조하고, 사농공상의 직업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26.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왕이] 비망기로 전교하였다. “…… 적의 난리를 겪는 2년 동안 군사 한 명을 훈련시키거나 무기 하나를 수리한 것이 없이, 명의 군대만을 바라보며 적이 제 발로 물러가기만을 기다렸으니 불가하지 않겠는가. …… 과인의 생각에는 따로 (가) 을/를 설치하여 합당한 인원을 차출해서 장정을 뽑아 날마다 활을 익히기도 하고 조총을 쓰기도 하여 모든 무예를 훈련시키도록 하고 싶으니, 의논하여 처리하라.”라고 하였다.

- ①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 ② 국경 지대인 양계에 설치되었다.
- ③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창설되었다.
- ④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 주축을 이루었다.
- ⑤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구성된 친위 부대였다.

정답: ④

* 조선 후기 5군영의 효시 훈련도감

5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선 초기의 중앙군은 16세기 이후 군역의 대립제가 일반화되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임진왜란 초기에 어이없는 패전을 경험한 조정에서는 새로운 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왜군을 물리치는 데 효과적인 편제와 군사 훈련 방식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1593).

훈련도감의 군병은 포수(조총), 사수(활), 살수(창, 칼)의 삼수병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장기간 근무를 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으로서, 의무병이 아닌 직업 군인의 성격을 가진 군인이었다(장변급료병).

훈련도감에 이어 대외 관계와 국내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군영이 더 설치되었다.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어영청(1623, 수도 방위), 총용청(1624, 경기 북부 방비), 수어청(1626, 남한산성 방비) 등이 설치되었고, 숙종 때에 금위영(1682, 궁궐 방위)이 추가로 설치되어 17세기 말에는 5군영 체제가 갖추어졌다.

① 조선 후기에 정조(1776~1800)는 친위 부대인 장용영(1793, 도성에 내영, 화성에 외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② 고려의 지방군은 국경 지방인 양계에 주둔하는 주진군과 5도의 일반 군현에 주둔하는 주현군으로 이루어졌다.

⑤ 고려의 중앙군 2군 6위 중 2군은,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구성된 국왕의 친위부대이다. 2군 6위의 군인들에게는 군역과 함께 세습이 되는 군인전이 지급되었다.

27. 밑줄 그은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S# 36. 궁궐 안
 이 조약의 체결로 이루어진 공사(公使)의 부임에 대한 답례차 파견되었던 전권대신 민영익이 귀국하여 고종을 알현하고 있다.

고 종: 그 나라의 부강함은 천하제일이라던데, 경이 이번엔 눈으로 보니 과연 그러하던가?
 민영익: 곡식이 생산되는 땅이 많고 사람들이 모두 실재에 힘씁니다. 그래서 상무(商務)가 가장 왕성하니,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고 종: 대통령이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던가?
 민영익: 신이 귀국하기 전에는 미처 듣지 못하였습니다.

- ①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었다.
- ② 천주교 선교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 ③ 양국의 수출을 허용하고 관세를 설정하지 않았다.
- ④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부산, 원산, 인천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 ①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

강화도 조약(1876.2) 이후 청은 일본의 독점적인 조선 침투를 견제하고 국제사회에 청국의 위신을 높이고자 미국과의 수교를 권고하였다. 이 권고안을 집약한 책이 1880년 수신사 김홍집에 의해 도입된 황쑨셴의 <조선책략>이다.

이 <조선책략>은 '친중', '결일', '연미'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였다. <조선책략>은 조선 내에 큰 영향을 미쳐 조선의 대외정책이 개국정책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1882.5)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양국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로 돕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주선한다는 거중 조정 조항(1조),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항 등 강화도 조약과 달리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치외 법권(4조), 최혜국 대우(14조) 등이 포함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후 조선 주재 미국 공사가 파견되자 정부는 미국에 민영익을 전권대사로 하여 최초의 구미 사절단인 보빙사를 파견하였다(1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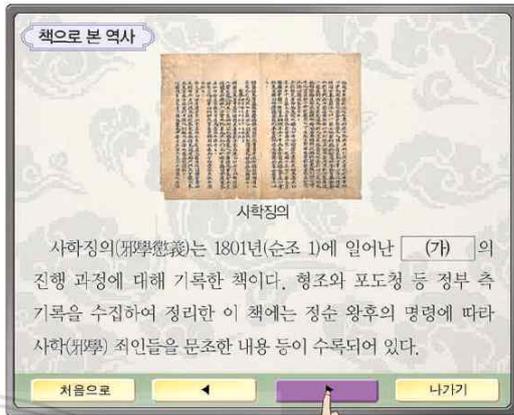
② 프랑스도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때에 수호조규를 곧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청의 이홍장의 소극적 태도와 천주교 포교 문제로 다른 서구 열강에 비해 비교적 늦은 1886년 5월에 체결되었으며 천주교 포교도 허용되었다(직접적인 문구는 없지만 양국 언어·학문 연구의 우대조건을 적용하여 인정).

③, ⑤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1876.2)으로 부산(1876), 원산(1880), 인천(1883)이 개항되고, 후속 조치로 체결된 동년 8월의 수호 조규 부록과 무역규칙(통상장정)으로 일본화폐 사용(부록), 양국의 무제한 수출,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 등이 허용되었다.

④ 러일전쟁 중 체결된 2차 한일협약(1904.8)으로 외교 고문으로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가 부임되었다.

28.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 ② 최제우가 흑세무민의 죄로 처형되었다.
- ③ 홍경래 등의 봉기로 정주성이 점령되었다.
- ④ 이승훈, 정약용 등이 연루되어 처벌되었다.
- ⑤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정답: ④

* 천주교 박해 신유박해(1801)

천주교는 17세기에 중국 베이징의 천주당을 방문한 우리나라 사신들에 의하여 서학(西學)으로 소개되었다. 천주교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8세기 후반이었다. 당시 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고심하던 남인 계열의 일부 실학자들이 천주교 서적을 읽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서양인 신부에게서 영세를 받고 (1784) 돌아온 이후로 신앙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정부는 천주교가 유포되는 것에 대하여, 내버려 두면 저절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점차 교세가 확장되고 천주교가 조상에 대한 유교의 제사 의식을 거부하자,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부정과 국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사교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정조 때에는 천주교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였으나, 순조가 즉위한 직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과 함께 노론 벽파가 집권하며 반대파인 시파 남인 계열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대탄압이 가해졌다(신유박해, 1801). 이 사건으로 이승훈, 정약중, 주문모(중국인 신부) 등 300여 명의 신도가 처형당하고, 정약전(흑산도, 자산어보 저술), 정약용(강진, 수많은 실학서 저술) 등이 유배를 당하는 등 천주교 전래에 앞장섰던 실학자 및 많은 수의 양반 계층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특히 황사영 백서 사건(천주교 신자인 황사영이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청의 베이징 주교에게 조선에 군대를 보내 도와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보내려다 발각된 사건)으로 천주교인들은 더더욱 탄압을 받게 되었다.

① 선조 때의 기축옥사(1589~1591) 즉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연루된 동인이 서인 정철에 의해 큰 타격을 받았다(호남 동인 몰락).

② 1860년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한다는 죄(흑세무민)로 처형당하였다(1864).

③ 서북민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대우에 반발하여 몰락 양반인 홍경래를 중심으로 영세농과 광산노동자들이 농민봉기를 일으켰다(1811). 이들은 처음 가산에서 난을 일으켜 선천, 정주 등을 점거하며 한때는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으나 정주성 싸움에서 패하며 5개월 만에 평정되었다.

⑤ 철종(1849~1863) 때에 일어난 최대의 농민봉기인 임술농민봉기(1862) 때에 진주민란(백낙신의 탐학에 저항)의 수습을 위해 안핵사로 박규수가 파견되었다.

29.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학술 대회 안내

우리 학회는 동비토록(東匪討錄)에 수록된 내용을 분석하여 이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발표 주제

- (1) 무장(茂長) 포고문에 나타난 보국안민 사상
- (2) 초토사 홍계훈이 올린 장계를 통해 본 조정의 입장
- (3) 청과 일본 군대의 조선 상륙과 청·일 전쟁의 전개 과정

■ 일시: 2018년 ○○월 ○○일 13:00~18:00

■ 장소: □□대학교 대강당

- ① 외규장각 도서의 약탈 과정을 살펴본다.
- ②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배경을 분석한다.
- ③ 아관 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 사례를 조사한다.
- ④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의 전개 과정을 알아본다.
- ⑤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파견된 특사의 활동 내용을 파악한다.

정답: ④

* 동학농민운동(1894)

동학 농민 운동은 1894년 2월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었다. 녹두장군이라 불리우는 전봉준(1854~1895)을 중심으로 한 농민층은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학에 맞서 봉기(고부 봉기)하여 관아를 일시 점령하였으나 후임 군수 박원명의 회유에 의해 해산하였다.

그러나 안핵사 이용태에 의한 정부의 탄압에 저항하여 4월 보국안민(나라를 도와 백성을 편안케 한다)과 제폭구민(부패한 관리를 제거하여 백성을 구한다)을 내세우며 다시 봉기하였다(1차 봉기: 무장 기포 -> 백산 봉기). 이후 황토현에서 감영군, 황룡촌에서는 경군에 승리하며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였다.

한편 정부의 요청에 의해 청군이 출동하고 텐진조약에 의해 일본군도 출동하자, 6월 정부와 농민군은 전주에서 화약을 맺고 폐단이 많은 정치를 개혁하기로 합의하였다(전주화약).

이후 농민군은 각지에 자치행정 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실천해 나갔다.

그러나 7월 일본군이 청·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경복궁을 점령하며 내정을 간섭하자, 농민군은 10월 다시 봉기(2차 봉기)하여 외세를 몰아내기 위하여 서울로 진격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파견된 우세한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농민군은 12월 공주 우금치에서 패하고,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① 병인양요(1866.9) 당시 강화도에 침입한 프랑스군에 의해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② 갑신정변 이후 조.러 밀약설에 긴장한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남해안의 거문도를 3년간(1885-1887) 불법 점령하였다.

③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관 파천(1896.2~1897.2)으로 인해 국가의 자주성은 손상되었고, 광산, 삼림 등에 대한 열강들의 이권 침탈도 심화되었다.

⑤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1907.7)가 열리자 특사(이준, 이상설, 이위종)를 파견하여 을사조약의 무효를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특사는 대한제국에게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 참석조차 거부되었으며 열강의 외면을 받았고, 이준은 분사(憤死)하였다.

30.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대원군에게 군국사무를 처리하라는 명이 내려지자, 대원군은 권내에 거쳐하면서 [통리]기무아문과 무위영·장어영을 폐지하고, 5영의 군계를 복구하고 군료(軍料)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난병(亂兵)에게 물러가라 명하고 대사령을 내렸다. 난병들은 대궐에서 물러나 사망으로 흩어졌다.

- 「태천야록」 -

- ①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 ②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 ③ 왕조의 통치 규범을 재정비한 대전통편이 편찬되었다.
- ④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하여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 ⑤ 일본 공사관 경비병의 주둔을 인정한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었다.

정답: ⑤

* 임오군란(1882.6)의 후속 과정

개항 후 일본 상인의 대량 수입으로 점차 쌀이 부족해지며 쌀값이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의 하층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져 갔다.

한편, 신식 군대인 별기군에 비해 구식 군인들에 대한 대우는 매우 열악하여 13개월 만에 월급으로 지급한 쌀에는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다. 여기에 정부의 개화 정책에 불만을 품었던 구식 군인들은 마침내 선혜청을 습격하며 임오군란을 일으켰다(1882.6).

구식 군인들은 흥선 대원군을 찾아가 지지를 요청했으며, 정부 고관들의 집을 부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이 와중에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이 죽었다.

그 후 서울의 하층민들이 가세하여 세력이 더욱 커지자, 구식 군인들은 왕궁을 습격하고 민씨 일파 등 고위 관리들을 처단하였다. 군인들이 궁궐에까지 침입하자 민비는 종적을 감췄고(장호원 피신), 고종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흥선 대원군에게 정권을 맡겼다.

흥선 대원군은 통리기무아문과 2영을 폐지하고 5군영 체제로 환원하는 등 개화 정책을 철회하고, 난병들을 사면하였다.

그러나 민씨 일파로부터 군대 파견을 요청 받은 청은 일본의 무력 개입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군대를 출동시켜 군란을 진압했으며, 군란의 책임을 물어 흥선 대원군을 자국으로 납치하고 3년간 텐진에 연금하였다.

또한 청은 군대를 주둔시키며,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고문 파견: 마건창, 밀렌도르프)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8)을 체결하여 양화진을 통한 한성개장권과 내지통상권을 얻어 도성의 시장과 개항장 밖 내륙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군란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굴복한 정부는 제물포 조약(1882.8)을 체결하여 사과 사절단의 파견(3차 수신사: 박영효), 주모자 처벌, 배상금 지불, 공사관 경비병 주둔 등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다.

- ① 두 차례(병인·신미)에 걸친 서양의 침략을 물리친 흥선 대원군은 서양과의 통상 수교를 반대하는 정책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웠다(1871).
- ② 강화도 조약(1876.1) 체결 직후 조선 정부는 대일본 사절단의 수신사로 김기수를 파견하였다(1876.4).
- ③ 정조 때에 왕조의 통치규범을 재정비한 대전통편(1785)이 편찬되었다.
- ④ 김홍집이 국내에 소개한 <조선책략>에 대한 반발로 이만손 등의 영남 유생들은 러시아를 막기 위한 미·일과의 연대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만인소를 올렸다(1881).

31. (가)~(마)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가) - 지주 문재철의 횡포에 맞선 소작 쟁의가 발생하였다.
- ② (나) - 상권 수호를 위해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되었다.
- ③ (다) - 김광제 등의 발의로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났다.
- ④ (라) - 토산품 애용을 위한 조선 물산 장려회가 발족되었다.
- ⑤ (마) -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조선 형평사가 창립되었다.

정답: ②

* 각 지역의 사회.경제 운동

① 1923년의 전남 신안군의 암태도 소작 쟁의(암태 소작회 주도)는 한국인 지주(문재철)와 일본 경찰에 맞서 1년간 싸워 소작료 인하를 관철시킨 소작쟁의의 대표적 사례이다.

② 개항 이후 청일 등 외국 상인들이 침투해 오자 서울 도성의 시전상인들은 황국중앙총상회(1898.9)를 조직하여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하였다.

③ 백정들은 3·1 운동(1919) 이후 사회적 차별을 스스로 철폐하기 위하여 진주에서 강상호(양반 부호), 이학찬(백정 부호) 1923년 조선 형평사를 결성하고 형평운동을 전개였다.

④ 국민의 모금으로 나라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2월 대구 광문사의 서상돈, 김광제 등의 주도하에 시작되었다.

⑤ 1920년대에 토산품을 애용하여 민족기업을 육성하고 경제자립을 이루자는 물산 장려운동이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세운 조선물산장려회(1920)의 주도 하에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32. 다음 글이 작성된 이후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본 [덕원]부는 해안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고 아울러 개혁지입니다. 이곳을 빈틈없이 잘 운영해 나가는 방도는 인재를 선발하여 쓰는 데 있고 그 핵심은 가르치고 기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사(元山社)에 글방을 설치하였습니다.
- 덕원 부사 정현석의 장계 -

- ① 국한문 혼용체의 황성신문이 발간되었다.
- ② 교원 양성을 위해 한성 사범 학교가 설립되었다.
- ③ 험버트, 길모어 등이 육영 공원 교사로 초빙되었다.
- ④ 근대 기술을 배우기 위해 청에 영선사 일행이 파견되었다.
- ⑤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정답: ④

* 원산학사 설립(1883) 이후의 역사적 사실

근대 학교는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면서 민족 정신을 키워,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는 민족 운동의 바탕이 되었다. 개화 운동이 진행되면서 정부에서 영어 강습 기관(동문학, 1883)을 세우고, 함경도 덕원에서는 관민이 합동하여 원산학사(1883)를 세우고 신지식과 외국어를 가르쳤는데, 이는 우리 나라근대 교육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후, 정부에서는 육영공원(1886)을 세우고 미국인 교사 세 사람(험버트.길모어.번커)을 초빙하여 주로 양반 자제들에게 신지식과 외국어를 가르쳤다.

① 황성신문(1898~1910)은 남궁억, 나수연 등이 발행한 국·한문 혼용체로 된 일간 신문으로 유림층을 주 대상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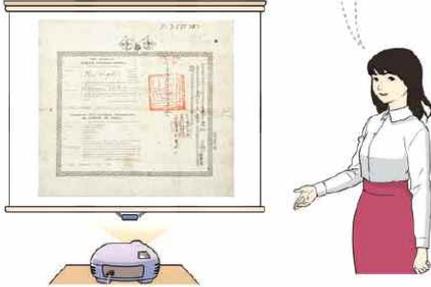
② ⑤ 1895년 2월 반포된 고종의 교육입국 조서 정신에 따라 동년, 소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4월의 '한성 사범학교 관제를 공포하고 설립하였다.

④ 개항 후 청에 영선사와 젊은 학생과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톈진에서 근대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훈련법을 배우게 하였으나 (1881), 재정 지원이 부족하여 1년 만에 돌아왔다.

33. (가) 시기에 실시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것은 고종이 국호를 (가) (으)로 고치고 새로운 연호를 선포한 이후 만들어진 여론입니다. 이 여론이 발행된 (가) 시기에는 황제 직속의 원수부가 설치되는 등 각종 개혁이 실시되었습니다.



- ㉠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하였다.
- ㉡ 박문국을 설치하고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 ㉢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 ㉣ 지방 행정 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 ㉤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정답: ㉠

* 대한제국과 광무개혁(1897~1904)

아관 파천(1896.2) 이후 열강의 침탈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며, 고종을 황제로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고종은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왔다(1897.2).

환궁 후 고종은 연호를 광무라 고친 후 환구단을 쌓아 황제 즉위식을 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선포하였다(1897.10). 대한 제국은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건국된 국가로, 고종은 국내외에 대한 제국이 자주 독립 국가임을 분명히 하였다.

1899년에는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여 황제가 군대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한 전제 군주임을 강조하였다.

대한 제국은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 아래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대한 제국은 국가의 자주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와 재정 확충, 상공업 육성에 주력하였다.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하고 황제 호위 부대를 증강하였으며, 장교 양성을 위해 무관 학교를 설립하였다.

대한 제국은 조세 수입을 늘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양지아문(1898)을 설치하여 양전 사업을 하고, 지계아문(1901)을 통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물건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이와 함께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여 섬유, 운수, 광업, 철도 등의 분야에서 근대적 공장과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근대적 과학 기술을 일으키기 위해 의학교, 실업학교, 외국어 학교 등을 세우고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 개항(1876) 이후 개화정책에 따라 박문국에서는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1883)를 발간하였다.

㉢ 1차 갑오개혁(1894. 7~12) 때에 공사노비 혁파되어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과거제도 폐지되었다.

㉣, ㉤ 2차 갑오개혁(1894.12~1895.7) 때에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가 반포되고, 지방제도가 8도에서 23부로 개편되었다.

34.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달의 인물

한글을 사랑한 ○○○

- 호: 한훤생, 백천(白泉)
- 생몰: 1876년~1914년
- 주요 활동
 - 독립신문 교보원 활동
 - 국문동식회 조직
 - 국어문법, 말의 소리 저술
- 서훈: 1980년 건국 훈장 대통령장



- ① 잡지 한글을 간행하였다.
- ②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 ③ 가갸날을 제정하고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 ④ 국문 연구소에서 한글 연구를 체계화하였다.
- ⑤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답: ④

* 한글학자 주시경(1876~1914)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백천(한훤생) 주시경(1876~1914) 선생은 한글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일찌기 이승만과 함께 배재학당을 동문수학하고, 독립협회에 같이 활동하며(옥중에 갇힌 이승만에게 옥혈포를 건네주어 탈옥을 도모케도 하였음), 청춘을 불살랐다.

그는 우리말이 우리 정체성임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한글 연구의 체계화시켰다. 그 결과물로 1910년 국어문법을 저술하여 현대문법의 종합적인 체계를 개척하였고, 오늘날 정서법의 자리를 굳힌 '한글맞춤법통일안'의 기본이론을 세웠다

또한 주시경은 지식영과 함께 최초의 한글 연구단체인 학부 산하의 국문연구소(1907)에서 활동하면서 한글 연구의 기초를 놓으며, 이운재, 장지영, 최현배 등의 후진을 양성하다 38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①, ③ 3·1 운동 이후 임경재, 장지영 등의 주도로 조선어 연구회가 창립(1921)되면서 국어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들은 한글 연구와 더불어 강습회를 열어 한글 보급에 노력하였다. 또, 한글 기념일인 '가갸날'을 제정하여 우리말쓰기를 권장하였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여 한글 대중화에 이바지하였다.

②, ⑤ 1931년에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확대 개편되면서 더욱 활발한 한글 보급 활동이 전개되었다. 조선어 학회의 가장 큰 성과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의 제정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어 학회는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 하였지만, 일제의 방해로 중단되고 말았다.

특히 일제는 조선어 학회를 독립 운동 단체로 간주하여 관련된 인사들을 체포하고, 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를 조선어 학회 사건(1942)이라 한다. 이 때 이운재, 한징 등이 옥사하였다.

35. 밑줄 그은 '이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점]

이것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안창호 기념 메달입니다. 그가 양기탁 등과 함께 조직한 비밀 결사인 이 단체는 대성 학교, 오산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① 이룡양행에 교통국을 설치하였다.
- ② 태극서관과 자기 회사를 운영하였다.
- ③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 ④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 ⑤ 만민 공동회를 열어 민권 신장을 추구하였다.

정답: ②

* 안창호가 활약한 신민회

신민회는 안창호(1878~1938), 양기탁, 이승훈 등의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하여 조직된 비밀결사 애국계몽운동단체였다.

신민회는 국권의 회복과 공화 정체의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고, 국내에서는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면서 국외에서는 독립군 기지의 건설에 의한 군사적 실력 양성(서간도 삼원보: 경학사, 신흥강습소->신흥무관학교)을 꾀하다가 105인 사건(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사건이 날조되어 신민회 회원과 관련이 있는 안악 사건으로 확대되어 105인이 기소된 사건)으로 해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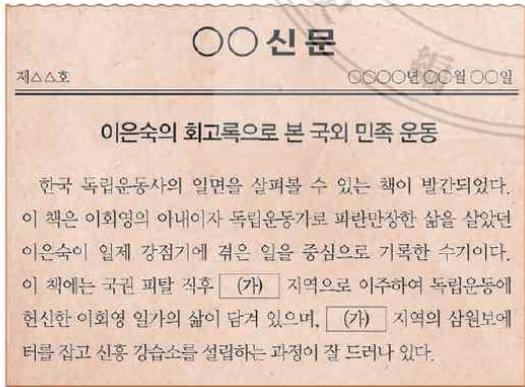
관련 활동으로 언론으로는 양기탁의 대한매일신보, 교육으로는 안창호의 평양 대성학교(1908), 이승훈의 정주 오산학교(1907) 등이 있으며, 산업으로는 평양의 자기회사, 대구의 태극서관 등을 설립하였다.

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재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애국 공채를 발행하고, 국민 의연금을 걷어들여 군자금을 마련하고 이룡양행(만주)과 백산 상회(부산)를 거쳐 국내외를 연계하는 조직망인 연통제와 교통국 등을 통하여 상해로 전달되었다.

③ 최초의 애국계몽운동 단체 보안회는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반대운동을 벌여 이를 저지시켰다(1904).

④, ⑤ 독립협회(1896.7~1898.12)는 만민공동회를 열어 이권수호운동과 자유민권 운동을 전개하였고, 관민공동회로 발전하여 1898년 10월 헌의 6조를 건의하여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하여 고종의 약속까지 받았으나, 동년 12월 보수파(황국협회)의 모함과 공격으로 해산되며 실패하였다.

36. (가)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한인 자치 기구인 경학사를 설립하였다.
- ②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여 군사 훈련을 하였다.
- ③ 대한인 국민회를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 ④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 ⑤ 대한 광복군 정부가 세워져 무장 독립 투쟁을 준비하였다.

정답: ①

* 서간도 지역의 민족운동

신민회 회원들이 독립군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회영 형제 집안과, 이상룡 등이 중심이 되어 서간도 삼원보에 자치 기구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홍 강습소(후일 신홍 무관 학교)와 같은 군사 간부 양성소를 설치하였다(1911).

특히 신홍학교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백서농장을 건설하고 독립군을 편성, 훈련하였다. 경학사는 뒤에 부민단, 한족회로 발전하면서 독립군(서로 군정서)을 조직하였다.

②, ③ 미주 지역에서는 1910년 자치단체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인국민회가 설립되었고, 1914년 박용만은 미주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④ 일본으로는 유학, 취업 등 목적으로 이주하였으며, 1919년 2.8 독립선언이 발표되어 3.1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⑤ 연해주 지역에서는 군정기관으로 이상설, 이동휘 등이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를 조직하여 군사활동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37. 밑줄 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1점]

1910 (가) 1919 (나) 1925 (다) 1931 (라) 1937 (마) 1945

국권
피탈 3·1
운동 미쓰야
협정 만주
사변 중·일
전쟁 8·15
광복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②

* 간도 참변 (1920. 10~12)

3.1 운동(1919)의 민족적 자신감과 함께 만주(간도)에서 항일 무장 투쟁이 본격화되어 흥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가 중심이 되어 봉오동 전투(1920.6), 청산리 대첩(1920.10) 전성기를 맞았다.

일제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 1920년 10월부터 3개월간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하기 위해 간도 지역의 수많은 한국인을 학살하고 민가와 학교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간도 참변).

이에 독립군은 일본군의 추격이 없는 안전지대에서 부대를 재정비하기 위해 소련·만주 국경 지대인 밀산부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1921년 4월 대한 독립 군단을 결성한 후 소련령으로 이동하였다.

독립군은 헤이룽 강 연안의 자유시로 이동하였으나, 독립군 내부의 군 지휘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소련군의 공격을 받아 이른바 자유시 참변을 당하였다(1921. 6.).

38. (가) 종교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이달의 독립운동가

무원 김교현

단군에 대한 여러 저술을 주관하여 민족 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나철의 뒤를 이어 (가)의 제2대 도사교(교주)에 취임하였으며, 대한 독립 선언서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에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1977년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① 사찰령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 ③ 항일 단체인 중광단의 결성을 주도하였다.
- ④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 ⑤ 경향신문을 발행하여 민중 계몽을 위해 노력하였다.

정답: ③

* 민족 종교 대종교에 대하여

을사 5적 암살단을 이끌던 나철(1863~1916, 1대 종사), 오기호(1863~1916) 등은 1909년에 단군 신앙을 받드는 대종교를 창시하였다.

대종교는 국권 피탈 후 교단을 만주로 옮기고 많은 민족 학교를 설립하였고, 2대 종사 김교현(1868~1923)은 3대 종사 서일(1881~1921)을 단장으로 하여 중광단(1911)을 결성하였고, 대한독립선언(1918.11)을 주도하였다.

중광단은 3·1 운동을 전후로 하여 정의단, 군정부를 거쳐 북로 군정서(총재: 서일)로 개편되어 청산리대첩(1920.10) 등 적극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간도참변(1920.10~12) 후에 서일은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등 모든 제 독립군 부대를 '대한독립군단'으로 편성하여 소련 자유시로 넘어갔으나 적군에 의해 무장해제와 이를 거부하는 독립군들이 참살당하고(자유시 참변, 1921.6) 토비들의 습격이 겹치자, "나라 땅은 유리쪽으로 부서지고 티끌모래는 바람비에 날렸도다. 날이 저물고 길이 궁한데 인간이 어디메뇨."라는 글귀를 남기고 대종교 수양법의 하나인 조식법(調息法)으로 자결하였다.

① 불교계의 한용운(1879~1944)은 일제의 사찰령(1911)에 맞서 조선 불교 유신회(1920)를 조직하여 불교의 혁신과 자주성 회복을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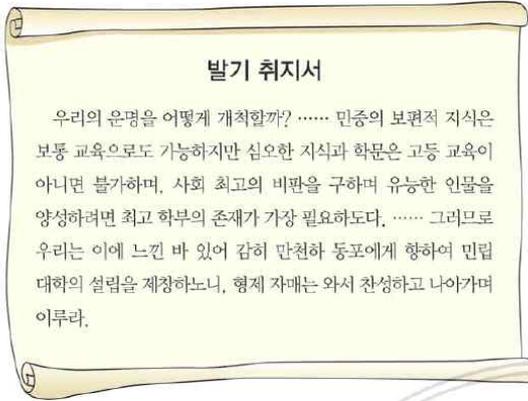
②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는 신문으로 만세보(1906), 잡지로는 개벽(1920), 신여성(1923), 어린이(1923), 등을 간행하며 문화·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④ 미국 개신교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최초의 근대 사립 중등학교인 배재학당(1885)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⑤ 경향신문은 본래 1906년 10월 천주교에서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발간한 순한글판 주간신문으로 간행되다, 1962년에는 독립지가 되었고, 1950년대 이승만과 자유당 독재를 비판하다 1959년 강제폐간되기도 하였다.

39.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근우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②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 ③ 이상재 등이 주도하여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다.
- ④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 등을 발간하였다.
- ⑤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정답: ③

* 1920년대 민립대학 설립운동

3·1 운동 이후 일제는 이른바 문화 통치라는 명목 아래 제2차 조선 교육령을 시행하였다(1922). 이에 따라 일본인과 한국인을 동등하게 교육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한국인에 대한 교육 기회의 확대는 초등(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에 한정되었으며, 고등 교육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실력 양성의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인을 위한 고등 교육 기관인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192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이상재, 한규설 등은 1922년 민립 대학 기성 준비회를 결성하였다. 전국적인 호응 아래 1923년 3월에는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가 조직되어 신지식과 교육의 진흥을 위한 고등 교육 기관으로써 민립 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민립 대학 설립을 위한 모금은 '한민족 1천만이 한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와 함께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까지 전개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모금 운동이 쉽지 않았고, 1920년대 중반의 연이은 자연재해로 모금 운동이 중단되었다.

또한 일제는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방해하고, 일부 한국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1923년 경성 제국 대학 관제를 발표하고 이듬해 설립하였다.

① 근우회(1927~1931)는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좌우합작 여성운동단체이다

② 3.1 운동(1919)은 중국의 5.4 운동, 인도의 반영 운동 등의 해외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④ 방정환이 활약한 천도교 소년회에서는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였다.

⑤ 동아일보는 1931년부터 '브나로드 운동'이란 이름을 내세워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했는데, 여름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모아 행사를 기획하고 교재를 공급하였다

40.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신간회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 ② 순종의 인산일에 학생들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⑤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정답: ①

* 광주학생 항일운동 (1929.11)

6·10 만세 운동(1926) 이후 학생 운동은 일본인 교원 배척, 한국 역사 및 한국어 교육 허용, 학생회의 자치 허용 등을 내걸고 전개되었다. 특히 각급 학교에 조직된 독서회는 학생들의 항일 의식을 고양시키고 동맹 휴학을 주도하였다. 이 중 전남 광주 지역 항일 학생비밀결사인 성진회(1926년 11월 결성)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주도하였다.

1929년 11월, 나주역에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에서 검거된 조선인 학생에 대한 민족 차별과 식민지 교육에 저항하는 학생 시위가 광주에서 일어났다. 일제의 보도 통제에도 불구하고 학생 시위는 인근의 나주와 목포로 확산되었으며, 일반 시민들도 시위에 가담하였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전국에 알려지자 신간회(1927~1931) 등 민족 운동 단체에서는 진상 조사에 나섰다. 서울에서는 학생과 민족의 총궐기를 요구하는 격문이 나돌았다. 이에 일제는 조기 방학을 실시하여 고양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하였다. 이듬해 1월에 서울에서 신학기를 맞은 학생들이 궐기를 시작하였다.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시'를 내건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일제의 탄압에 학생들은 가두 시위나 동맹 휴학으로 맞섰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각급 학교 학생들이 참가함으로써 3·1 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가 독립운동의 주역임을 확인하였다.

② 6.10 만세운동(1926)은 순종 인산일에 학생들 주도로 전개되었다(같이 계획하던 사회주의쪽은 사전에 검거됨)

③ ⑤ 거족적 항일시위 운동인 3.1 운동(1919)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고, 일제의 통치가 유화적인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④ 국민의 모금으로 나라 빛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2월 대구 광문사의 서상돈, 김광제 등의 주도하에 시작되어 대한매일신보 등 여러 언론단체의 후원에 힘입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41. (가), (나)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몇 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이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우리 조선의 역사는 세계사적·일원론적인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들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 왔다.



(가)



(나)

- ① (가) -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독립 투쟁 과정을 서술하였다.
- ② (가) - 유물 사관을 토대로 식민 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 ③ (나) - 진단 학회를 창립하여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켰다.
- ④ (나) - 독사신론을 발표하여 민족을 역사 서술의 중심에 두었다.
- ⑤ (가), (나) -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며 여유당전서를 간행하였다.

정답: ①

* 역사학자 박은식과 백남운

일제는 침략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철저히 왜곡하거나 말살하려고 하였다. 일제는 타율성, 정체성, 당파성을 주장하는 식민주의 사관을 앞세워 한국사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부정하였다. 특히 총독부가 설치한 조선사 편수회는 식민주의 사관을 토대로 조선사를 편찬하여 한국사 왜곡에 앞장섰다.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한국사의 발전 주체가 우리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 사학의 허구성을 밝히는 데 힘을 기울였다.

박은식(1859~1925)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면서 <한국 통사>(1915)와 <한국 독립운동지혈사>(1920)를 저술하여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을 규탄하였다. 또한 우리의 민족 정신을 '국혼'과 '국백'으로 파악하였으며 특히 '국혼'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독립 정신을 정리하였다.

일찍이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1908)을 연재하여 왕조 사관과 사대주의를 비판하면서 민족 중심의 자주적 역사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신채호(1880~1936)는 <조선 상고사>(1931,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파악)와 <조선사 연구초>(1929, 묘청의 난을 조선 역사의 일천년대 제일대 사건으로 파악)를 지어 우리 고대 문화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하여 식민주의 사관을 비판하였으며, '낭가 사상'을 강조하여 민족 독립의 정신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였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역사학자 정인보(1893~?)는 동아일보에 연재한 '5천 년간 조선의 얼' 등을 통하여 주체적인 역사의식을 강조하였고, 1934년 다산 서거 99주년을 기념하여 안재홍 등과 <여유당전서> 발간에 참여하여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며 실학자들을 재평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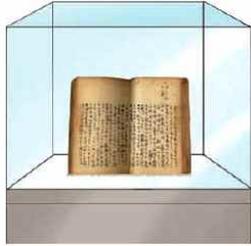
1930년대에는 백남운(1895~1974)에 의해 사회 경제사학이 대두되었다. 그는 <조선사회 경제사>와 <조선봉건사회경제사>에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이병도(1896~1989)는 손진태 등과 함께 1934년 국학 연구 단체인 진단학회를 창립하여 실증주의 사학을 발달시켰다.

42.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것은 한국 독립군과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으로서 항일 독립 전쟁을 이끈 (가)의 친필 일기입니다. 이 일기에는 광복 후 그의 활동과 과거 독립운동을 함께 했던 인물들에 대한 회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 ① 의열단을 조직하여 단장으로 활동하였다.
- ②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③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
- ④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 ⑤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정답: ④

* 지청천의 항일 무장투쟁

일본 육사 출신으로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한 지청천(1888~1957)은 북만주에서 1931년 한국 독립군을 결성하고 중국군과 연합하여 토일군(구국군 또는 호로군)을 조직하였다. 토일군은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이후 전리품 문제와 만주에서 사회주의화 되어가는 중국군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김구의 요청으로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임시 정부에 합류하였다.

1937년에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켜 중국 본토를 위협하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는 각처에 흩어져 있던 무장 투쟁 세력을 모아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을 때 (1940.9) 총사령에 취임하였다.

해방 후 우익 단체인 대한청년단을 이끌고 초대 무임소 장관을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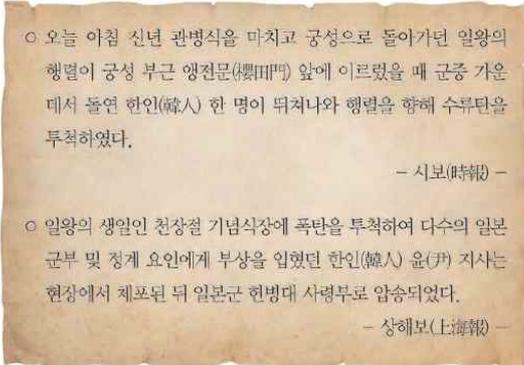
① 약산 김원봉(1898~1958)은 의열단과 조선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였다.

② 의열단 단원 나석주는 1926년 식민지 대표 착취 기관인 식산 은행과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들어가 폭탄을 던지고 권총으로 관리들을 저격하였다.

③ 임병찬(1851~1916)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1912년 결성한 비밀결사인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 이념에 따라 국권을 회복한 후 고종을 복위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전국적인 의병을 일으키려 하였다.

⑤ 이재명(1886~1910) 열사는 명동성당 앞에서 을사조약의 원흉 이완용을 칼로 저격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실패하였다(1909.12).

43. 다음 두 의거를 일으킨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중·일 전쟁 발발 이후에 창설되었다.
- ② 김구의 주도로 상하이에서 조직되었다.
- ③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하였다.
- ④ 김익상, 김상옥 등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 ⑤ 일제가 꾸며낸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정답: ②

* 한인애국단 단원들의 의거

1920년대 후반 이후 침체기에 빠진 임시정부에 활기를 불어 넣고, 만보산 사건(일제의 술책으로 1931년 7월에 있었던 만주지역 한,중 농민의 유혈충돌)과 만주 사변(1931년 9월에 있었던 일제의 만주 침공. 일제는 이후 이 지역의 조선인을 우대하고 중국인을 비하하는 정책을 펼쳐 반한감정이 고조되었다) 등으로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이 고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구는 1931년 10월 상해에서 '한인애국단'을 결성하여 적극적인 의열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왕 행렬에게 폭탄을 투척한 사건(1932.1)과 흥커우 공원에서 있었던 윤봉길의 폭탄 투척이었다(1932.4).

특히 윤봉길 의거는 중국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어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차후 한 국광복군 탄생의 바탕이 되었다.

① 중일전쟁은 1937년에 발발하였다.

③, ④ 김원봉이 1919년 11월 만주 길림성에서 조직된 의열단은 신채호가 1923년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일명 의열단 선언)을 지침으로 직접적 투쟁방법인 암살과 파괴·테러라는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김상옥(1923,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김익상(1921,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나석주(1926, 동.척과 식산은행 폭탄 투척) 등의 의거가 대표적이다.

⑤ 비밀결사 애국계몽운동단체 신민회(1907년 결성)는, 한일병합 후 데라우치 총독 암살미수사건과 관련된 안악 사건 날조에 의해 (105인 사건) 해체되었다(1911).

44.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회사령이 철폐되었다.
- ② 조선 태형령이 시행되었다.
- ③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
- ④ 여자 정신 근로령이 공포되었다.
- ⑤ 제1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되었다.

정답: ④

* 총동원 체제 시기의 모습

일제는 중일전쟁(1937)의 배경 속에서 1938년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하고 1940년대에는 태평양 전쟁(1941)을 도발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 하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또,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고(창씨개명, 1939),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기존의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에 이어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1941)을 공포하여 한국인 사상범을 사전에 탄압하였다

인적수탈로는 강제 징용(1944)으로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육군 특별) 지원병(1938), 학도 지원병 제도(1943), 징병 제도(1944)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또, 여성도 강제 노역조직인 근로보국대(1941)와 여자 정신대 근무령(1944)을 통해서 젊은 여성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으며,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물적 수탈로는 양곡 배급제와 함께 미곡공출을 실시하였으며(1940), 물자 부족이 심화되자 일제는 군수 산업 이외의 기업 활동을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광물 자원의 약탈은 물론 학교의 철문이나 집안의 손가락까지 강제로 빼앗아 갔다(금속 공출, 1942).

① 일제는 1910년 '회사령'을 제정하여,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여 한국인의 회사 설립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1920년,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 특수로 인한 일본 자본의 원활한 진출을 도모하고자 회사령을 철폐하였다.

②, ③, ⑤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기에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선태형령(1912)이 실시되어 인권을 유린하였고, 안정적 식민지 재정을 위해 토지조사사업(1910~1918)이 실시되어 미신고 토지들이 수탈되었다. 또한 1차 조선교육령(1911)이 제정되어 차별적 초등교육(보통학교 4년)과 실업교육이 주가 되는 우민화 교육이 이루어졌다.

45.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좌우 합작 위원회의 주축이 되었다.
- ② 김규식과 함께 남북 협상에 참여하였다.
- ③ 재미 한인을 중심으로 흥사단을 설립하였다.
- ④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 ⑤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여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

정답: ①

* 여운형(1886~1947)에 대하여

중도적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인 몽양 여운형은 1918년 파리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의 독립을 청원할 대표를 파견하기 위해 신한 청년당을 조직하여 김규식을 파견했고, 이듬해 상하이 임시 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임시 의정원 의원이 되었다.

1920년 고려 공산당에 가입, 이듬해 모스크바에서 열린 원동 피압박 민족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와 중국의 쑨원과 협력하여 중국 혁명을 적극 추진하다 복역하기도 했으며, 중앙일보 사장으로 있다가 1936년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사직하기도 하였다.

1944년 일본의 패전을 예상하고 비밀단체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하여 위원장에 취임, 독립 운동을 전개했다. 이듬해 8월 15일 해방되자 건국 동맹의 기반을 확대하여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기초로 이 해 9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 스스로 부주석이 되었으나 우익 진영의 반대와 미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해 실패했다. 12월 인민당을 조직, 이듬해 29개의 좌익 단체를 규합하여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 의장단의 한 사람에 선출되었으나 정책 노선이 명확하지 못해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고 반대파 좌익세력에게 밀려 탈퇴하였다. 또, 1947년 5월 근로인민당을 조직하였으나 극좌·극우 양측으로부터 소외당하였다.

한편 중도 우파인 김규식과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1947.7)하고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던 중 극우파 한지근에 의하여 1947년 7월 암살되었다.

② 김구(1876~1949)는 유엔의 남한 단독 총선 결정에 반발하여 김규식(1881~1950)과 함께 남북협상에 참여하였다

③ 안창호(1878~1938)는 무실역행을 주장하며 19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재미 한인을 중심으로 흥사단(興土團)을 설립하였다.

④ 이승만(1875~1965)은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북한에서 사실상의 정부가 수립되자(임시인민위원회), 1946년 6월 정읍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창하였다.

⑤ 의열단과 조선민족혁명당을 이끌던 김원봉(1898~1958)은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공산주의 정당과 연합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우한에서 중국 관내에서 최초의 무장 한인 부대인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1938).

46.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가 본격적으로 친일 청산에 나서자, 친일 경력이 있던 일부 경찰과 친일파들은 '공산당과 싸우는 애국지사를 잡아 간 반민 특위 위원은 공산당'이라며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구실로 반민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구속하였다.

(나) 자유당은 당시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였다. 그해 11월, 개헌안은 의결 정족수에 1명이 부족하여 부결되었는데, 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개헌안이 다시 통과된 것으로 빈복하였다.

- ①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다.
- ② 장기 독재를 가능하게 한 유신 헌법이 공포되었다.
- ③ 평화 통일을 주창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 ④ 임시 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 ⑤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한 3·15 부정 선거가 자행되었다.

정답: ④

* 반민특위 습격사건(1949.6)과 사사오입 개헌(1954.11) 사이의 역사적 사실

- 해방 후 친일파의 처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제헌 헌법은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회는 이에 근거하여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쟁을 거듭한 끝에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였다(1948. 9.). 그리고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를 설치하였다(위원장 김상덕).

반민특위는 1949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7,000여 명의 반민족 행위자를 선별하고 일제의 전쟁 수행에 협력한 기업가 박흥식, 문필가 이광수, 종교인 최린,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경찰관 노덕술 등을 체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 세력을 제압한다는 명분 아래 친일파 처단을 늦추고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반민특위를 주도하던 김약수 등 국회의원들을 공산당과 연

결되었다는 구실로 구속하였으며(국회 프락치 사건),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서류를 압수하고 직원을 연행하기도 하였다(6.6 사건). 이러한 상황에서 반민특위는 법안 개정으로 1949년 8월 말 시효가 단축되어 만료됨으로써 해체되었다.

- 1954년 5월, 제3대 국회의 민의원 선거에서는 관권의 개입으로 자유당이 압승하였다. 본래 2차 개헌(발췌개헌)에 따라 양원(참의원, 민의원) 선거가 있어야 하나 6·25 전쟁 직후 국내 정세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참의원 선거는 치르지 않았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권력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重任) 제한을 철폐하자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이를 부결시켰으나, 자유당은 부결 이틀 만에 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가결을 선언하였다(2차 개헌: 1954.11).

① 4.19 시민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인 1960년 6월의 3차 개헌에서 내각책임제와 양원제가 채택되었다.

② 박정희 정권의 유신 헌법(1972.10, 7차 개헌)은 통일주체국민회에서 대통령을 선출(간선제)케 하여 장기독재가 열리게 되었다.

③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진보당과 당수 조봉암을 구속, 해체(1958.1)하고, 간첩 혐의를 씌워 조봉암을 전격 처형하였다(1959.7)

④ 6.25 전쟁 중 임시 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에 내각책임제를 약간 가미한 개헌안인 발췌개헌(1952.7)이 가결되었다.

⑤ 1960년 자유당 정권은 부통령으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결국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47. 밑줄 그은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제시된 자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된 총선거의 투표 방법 안내 포스터로, 선거인 등록부터 기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까지 매우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 ① 비례 대표제가 적용되었다.
- ②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였다.
- ③ 38도선 이남 지역에서만 실시되었다.
- ④ 제헌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였다.
- ⑤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서 선거가 무효 처리되었다.

정답: ① [고급 23회 47번과 유사]

* 5.10 총선(1948)

제헌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5·10 총선거는 대다수 국민의 참여와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실시되었다. 반면에 김구와 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와 일부 중도 세력 및 공산주의자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주도 일부 지역(4·3 무력항쟁으로 2개 선거구 불능)을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투표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5·10 총선거는 38도선 이남 지역에서만 실시되었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다. 만 21세 이상의 유권자들은 보통·직접·평등·비밀의 원칙에 따라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였다. 이 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제헌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① 1963년 실시된 제6대 총선거에서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전체 의석의 1/4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했고, 지역구 선거에서의 정당간 득표비율을 배정기준으로 삼았다.

48. 다음 뉴스에 보도된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기>

- ㄱ. 최저 임금법이 제정되었다.
- ㄴ. 한·미 원조 협정이 체결되었다.
- ㄷ.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가 달성되었다.
- ㄹ.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중급 36회 49번과 유사]

* 전태일 분신사건(1970.11) 이후의 역사적 사실(1970년대 이후의 경제)

1960년대 박정희 정부에 의해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산업화 초기에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등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1970년 11월,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분신하며 암울한 노동 현실을 사회에 고발하였다. 이 사건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학생, 지식인, 종교계 등에 큰 충격을 주었다.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추구한 최저임금법이,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6년 12월에 제정되어 1988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한국의 경제적 위기 방지와 안정을 위해 미국의 경제적 원조를 명문화한 한미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1961년 2월까지 존속).

㉢ 1970년대 초 국제 유가 폭등으로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수출은 계속 증대하여, 1977년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였다.

㉣ 1962년부터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새로 수립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 기간에 정부 주도,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을 육성·지원하였고 경공업과 수입 대체 산업,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49. (가), (나) 인물이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인물로 보는 한국 현대사

(가)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기재 출신 • 신민당, 통일 민주당 총재 • 민주화 추진 협의회 공동 의장 •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 신안 출신 • 제16대 대통령 선거 신민당 후보 • 민주화 추진 협의회 공동 의장 •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보 기>

ㄱ. (가) -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ㄴ. (가) - 금융 실명제가 전격 시행되었다.
 ㄷ. (나) -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ㄹ. (나) -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기의 역사적 사실

(가) **김영삼 정부**(1993.2~1998.2): 김영삼 정부는 5·16 군사 정변 이후 31년 만에 들어선 민간 정부(문민정부)임을 강조하며 개혁을 단행하였다.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1995.6),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1993)하여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1993). 신군부의 뿌리인 하나회를 해체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였으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반란 및 내란죄로 수감하였다(1995.11~12).

또한 1995년 12월 국회에서 5.18 광주시민항쟁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 12월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였다. 한편, 성급하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1996)하는 등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했으나, 임기 말에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에 의존하게 되었다(199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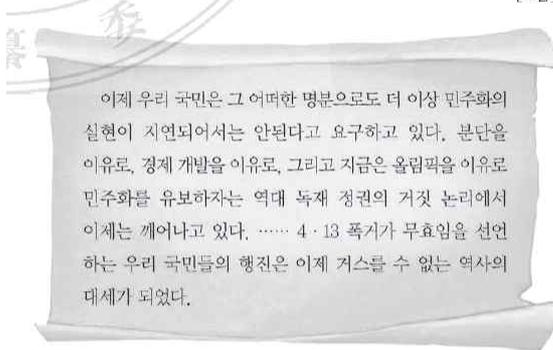
(나) **김대중 정부**(1998.2~2003.2): 여야 평화적 정권교체로 1998년에 성립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및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을 천명하여 IMF 관리체제를 조기에 극복하였고,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2000년 6.13 남북 정상 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였고, 남북 경제 협력의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이산 가족의 상봉을 통해 평화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여 붉은악마의 멋진 응원과 함께 4위라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 냈다.

㉠ 노태우 정부(1988.2~1993.2) 때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8)과, 남북 기본합의서 및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1991.12).

㉡ 노무현 정부 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2007년 일부 분야 한정 체결, 재협상 후 2012년 이명박 정부 때에 발효)이 체결되어 세계무역 10대국 반열에 오르는 기반이 되었다.

50.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양원제 국회가 출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②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였다.
- ③ 신군부의 비상 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 ④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⑤

* 6월 민주항쟁(1987)

대통령 간선제 헌법과 전두환 정부(1980~1987)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대통령 간선제 고수)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직선제 개헌과 민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 시위는 연세대생 이한열의 사망으로 더욱 격화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당대표 노태우 발표),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현행 헌법).

① 1960년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가 원인이 되어 발발한 4.19 시민혁명으로 내각책임제와 골자로 하는 3차 개헌(1960.6)이 이루어지고 이후 총선을 통해 한 때 참의원, 민의원의 양원제 국회가 출현하였다.

② 박정희 정부의 한일국교 정상화과정에서 1964년 굴욕적 한일회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있자, 서울에 계엄령이 발동되는 6.3 사태가 발발하였다

③, ④ 1980년 전두환, 노태우가 이끄는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 발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으로 수백 명이 희생되었다.